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제388호
2026년 9월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www.snuaa.org

발행인: 황호숙 편집장: 신복례



실리콘밸리에서 개최된 SNUAA EDGE 2026 참석자 단체 사진. 지난 8월 14~15일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미 한인 과학기술인, 기업가, 투자자 등 서울대 동문 100여 명이 참석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SNUAA EDGE 2026, 동문 네트워크 새 지평 열었다

젊은 동문 100여 명, 8월 실리콘밸리 집결
기술·창업·투자 교류하며 협력과 성장 모색
90년대 이후 학번 80명, 미주동창회 가입

지난 8월 14~15일, 혁신의 아이콘인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SNUAA EDGE 2026은 한국과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울대 동문 과학기술인, 기업가, 투자자, 개발자, 마케터 등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한 뜻깊은 동문 네트워킹 행사였다.

이틀 동안 3명의 키노트 연사를 포함해 총 26명의 초청 연사와 12개 세션으로 다채롭게 진행된 이번 행사는 스타트업, 투자, 산업,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서울대 출신 혁신가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실질적인 협력 기회를 만들어 가는 플랫폼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번 행사에는 112명이 등록하고 104명이 참석했다. 지리적 여건상 한국에서 참석한 동문은 4명에 그쳤지만, 미네소타, 뉴저지, 뉴욕, 텍사스,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DC., 조지아, 매사추세츠, 일리노이, 워싱턴 등 미국 11개 주에서 참석한 동문들이 전체의 20%를 넘었다. 여성 참석자도 약 35%를 차지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세대 구성의 변화였다. 2000년 이후 학번이 전체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면서 젊은 동문들이 행사의 중심에 섰다. 학번별로 보면 1990년 이전 6.3%, 1990년대 25.0%, 2000년대 30.2%, 2010년대 및 이후 38.6%

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다. 이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미주동창회가 선배 세대 중심의 친목 모임이라는 기존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젊은 기업인과 기술 전문가, 마케터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역동적인 네트워킹 플랫폼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분명한 신호이기 때문이다.

참석자들의 직업군도 다양했다. 과학기술인이 약 34%로 가장 많았고, 기업인이 24%, 대학원생이 12%, 사업개발 분야가 7.5%를 차지했다. 또한 VC, AC 등 투자자도 7.5%에 달해 기술개발과 창업, 사업개발, 창업 지원, 투자를 아우르는 서울대 동문 스타트업 생태계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공식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네트워킹은 계속됐다. 밤 2시까지 이어진 비공식 뒤풀이에서는 참가자들이 서로의 사업을 소개하고, 새로운 협업과 후속 투자 미팅을 논의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행사장의 분위기도 이러한 흐름을 그대로 반영했다. AI, 로보틱스, 바이오, 헬스케어 등 최신 기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창업가와 과학기술인, 학생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구체적인 협업 가능성을 모색했다.

서울대학교 개교 8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18일 관악캠퍼스에서 ‘개교 80주년 기념 2026 서울대학교 홈커밍데이 동문 나눔 한마당’ 행사가 성대하게 열린다.

서울대는 올해 개교 80주년을 기념해 지난 80년간의 학문적 성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 도약을 다짐하는 기념 포어를 발표했으며, 기념 음악회와 특별전시회, 동문 바둑 축제, 축하영상 공모전 등 다채로운 행사를 이어왔다.

이 같은 기념 행사의 대미를 장식할 10월 18일 홈커밍데이는 세계 각지의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모교에 대한 자긍심을 되새기고 동문의 정을 나누는 뜻깊은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0월 18일 홈커밍데이 공식 행사에 앞서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미주 동문들을 호암교수회관으로 초청

해 오찬을 함께하며, 모교를 아끼고 성원해 온 동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이준식 서울대 총동창회장은 행사 이후 미주 동문들을 초청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편, 미주동창회는 이번 홈커밍데이를 더욱 뜻깊게 만들어 줄 4박 5일 일정의 일본 온천 여행을 마련했다.

일본 북동부 야마가타현 쇼나이 지역을 방문해 따뜻한 온천욕과 제철 미식으로 몸과 마음을 쉬게 하고, 동문들과 함께 단풍 숲길을 거닐며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힐링 여행이다. 여행은 홈커밍데이 전인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4박 5일 동안 진행된다.

▶참가 문의: 남가주 최진석 동문 (213) 321-6428

이소란 총무국장 (651)347-5428/
contact@snuaa.org

전기·전자·컴퓨터 분야가 29.2%, 산업공학 10.4%, 기계공학 8.3% 등 공과대학 동문이 전체의 58%로 다수를 차지했지만, 경영대학 9.4%를 비롯해 사회과학, 자연과학, 인문학 등 다양한 전공의 동문들이 합

계하면서 학제 간 융합과 새로운 연결의 장이 만들어졌다.

글= 양경호(전자 83)
SNUAA EDGE 2026 준비위원회 위원장
(4면 SNUAA EDGE로 계속)

서울대 미주동창회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USA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Tel: 651-347-5428 | Email: contact@snuaa.org

‘5만 달러 후원’ 남가주 김일영(의대 65) 동문, 미주동창회 플래티넘이사 위촉

“장학사업 등 뜻깊은 활동에 작은 힘 보태고 싶어”

남가주 김일영(의대 65) 동문이 서울대 미주동창회에 5만 달러를 후원하며 플래티넘이사로 위촉됐다.

미주동창회는 재정자립을 위한 모금 캠페인 ‘센추리 파운데이션(Century Foundation)’에 뜻을 모아 후원해준 동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후원 규모에 따라 명예 칭호를 수여하고 있다. 10만 달러 이상을 후원한 동문에게는 ‘다이아몬드이사’, 5만 달러 이상을 후원한 동문에게는 ‘플래티넘이사’ 칭호를 수여한다.

현재 다이아몬드이사에는 고 고광선(공대 57·워싱턴주) 동문, 조상근(법대 69·뉴욕) 동문, 신의석(공대 53·필라델피아) 동문 등 세 분이 있다. 플래티넘이사는 그동안 조지아주의 주중광(약대 60)·허지영(문리대 66) 동문 부부가 있었으며, 이번에 남가주 김일영 동문이 새롭게 합류하면서 모두 세 분으로 늘었다.

“미주동창회가 장학사업을 펼치고 젊은 동문들을 지원하는 등 뜻깊은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고,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어 후원을 결심했습니다. 요즘은 동창회보에 읽을거리도 많아져 매달 발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창회를 위해 애쓰는 운영진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심장내과 전문의인 김일영 동문은 지난해 LA 한자리에서 46년 동안 운영해온 ‘베벌리 심장내과’를 13년 동안 함께 진료해 온 딸에게 물려주며 은퇴했다. 이와 함께 서울의대 북미주 총동창회에도 장학금 10만 달러를 기부했다. 은퇴 후 그가 가장 열심을 내고 있는 일은 성경 통독이다. “하루에 80페이지에서 100페이지를 읽고 있습니다. 2년 되었나요? 4주에 한 번씩 일독하는 계획으로 지금까지 25독을 했는

데 앞으로 100독을 넘겨보려고 합니다.”

여든의 나이에 하루 100페이지씩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일반 책도 하루 100페이지면 상당한 분량인데, 성경은 특히 단순히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곱씹고 되새기며 읽는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는 성경을 읽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내기 위해 평소 좋아하던 골프까지 그만 뒀다.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은혜가 되고, 읽을 때마



지난해 병원 은퇴 후 의대 동창회에도 장학금 살아온 삶에 감사하며 성경 100독 목표로 매진 47년째 이어 온 의대 동기 모임은 오랜 즐거움

다 새롭게 깨닫는 것이 있어 너무 재미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감사한 마음이 더 커지고 받는 은혜도 정말 큼니다.”

그가 은퇴 후 성경 통독을 시작한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에서였다.

김일영 동문은 심장내과 전문의로서 환자들의 큰 신뢰를 얻으며 의학적 업적을 쌓았을 뿐 아니라 부동산 투자에서도 큰 성공을 거뒀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의사인 아들 리처드가 맡아 성장시켰고, 병원은 심장내과 전문의인 딸 다이애나가 이어 받았다. 또 다른 딸

앤젤라 세넬라라는 하버드대 출신으로 NBC 방송 뉴스 등에서 법률 분석가로 활동하는 유명 변호사다.

“너무나 감사할 일 밖에 없었어요. 제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살면서 받은 가장 고마운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꼽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겪으시고, 결국은 죄 없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신 그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감사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읽기에 전념하느라 외출도 자

제하는 그가 손꼽아 기다리는 모임은 석 달에 한 번씩 만나는 1971년 졸업한 의대 동기 모임이다. 17명이 정기적으로 만나 젊은 시절에는 함께 뮤지컬을 보러 다니고 골프도 쳤다. 하지만 최근 두 동기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15명만 남았다.

“그때 동기가 100명인데 50여 명이 미국으로 왔어요. 1979년 제가 LA에 와서 개업한 이후 만나기 시작했으니 47년째 이어온 모임입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 지금은 점심을 함께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지만 가장 만나고 싶은 친구들입니다.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만 더 지나면 운전조차 힘들어져 점심 모임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김일영 동문은 인터뷰 말미 미국으로 건너와 치열하게 살아온 이민 1세대의 삶을 되돌아보며 후배들을 향한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처음 이민 와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치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내 던져져 주위에 도와줄 이 하나 없이 혼자서 헤엄쳐야만 했습니다. 잘못하면 가라앉아 죽을 수도 있다는 절박함 속에서, 살아남으려 결사적으로 매달렸기에 오늘의 보답과 성취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상이 찾아오기 마련”이라며 “결코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가라”는 따뜻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

글=신복레(인문대 83)
미주동창회보 편집장

바로잡습니다

지난 8월호 10면에 게재된 고 현건섭 박사 부고 기사 제목에서 고인의 이름이 ‘현건섭’으로 잘못 표기됐습니다. ‘현건섭’으로 바로잡습니다. 유가족께 사과드립니다.

알립니다

지난 8월호 1면에 게재된 ‘18대 미주동창회, 2차년도 핵심 사업은 나눔 실천’ 기사 중 “이러한 나눔 정신은 각 지역 동창회의 활동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 남가주 총동창회 양수진 회장으로 부터 베네수엘라 지진 모금 캠페인은 남가주 총동창회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사업임을 분명히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모금 캠페인은 미주동창회가 주관한 나눔 사업이 아니라 남가주 총동창회가 독자적으로 진행한 사업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지난 8월호 13면 지부 소식에 게재된 ‘남가주 총동창회 로봡캠프 성료’ 기사와 관련해, 남가주 총동창회 양수진 회장과 임원진이 남가주 동문 전체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양수진 회장의 사전 동의 없이 양수진 회장의 이름으로 지면에 게재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단체 이메일 내용을 양수진 회장의 이름으로 게재한 점에 대해 양수진 회장께 사과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Noblesse Oblige
**따뜻한 나눔으로
더 큰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 | 재난 및 긴급 구호
- | 지역사회 봉사
- | 문화 예술을 통한 지역 사회 공헌
- | 기타 공익성이 인정되는사업

CARE
따뜻한 배려

COMMUNITY
함께하는 공동체

CONNECTION
이어지는 나눔

나눔으로 이어지는
미주동창회

Hand illustrations by Storyset

CONTACT

회장 황효숙
 651-308-0796 | sook@nano-dyne.com

나눔 위원장 이성숙
 610-417-4789 | susyhong19@gmail.com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후원 “깊이 감사드립니다”



18대 동창회 출범 후 동문 20명 모금 캠페인 동참 “젊은 동문 네트워킹 등 활발한 활동에 깊은 인상”

지난해 7월 제 18대 서울대 미주동창회(회장 황효숙)가 출범한 이후,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모금 캠페인에 후원금을 보내온 동문은 모두 20명(8월 기준)에 달한다.

필라델피아 신의석(공대 53) 동문이 10만 달러를 기부해 다이아몬드이사에 위촉됐고 남가주 김일영(의대 65) 동문은 5만 달러를 보내 플래티넘이사가 됐다.

뉴욕의 강애드워드(사대 60) 동문과 북가주의 강재호(상대 55) 동문, 남가주에서 라스베이거스로 이주한 김용재(의대 60) 동문, 뉴잉글랜드의 오세경(약대 61) 동문 등 1만 달러 이상을 후원한 골드이사로 4명이나 탄생했다. 북텍사스의 이승화(공대 03) 동문은 2000년대 학번으로는 처음으로 5000달러 이상을 후원하는 실버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후원 규모에 따라 명예 호칭을 수여하고 있는데 많은 동문이 처음에는 3000달러 이상을 후원하는 종신이사로 시작해 점차 후원 규모를 늘려왔다.

남가주의 김수영(사대 57), 조용원(문리대 66), 홍성선(약대 72) 동문이 종신이사에서 실버이사로 승격됐다.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모금 캠페인에 처음으로 3000달러를 후원해 종신이사가 된 동문도 10명에 이른다. 거주하는 지역도 다양하다.

플로리다의 박우삼(의대 54), 남가주의 김홍묵(문리대 60), 필라델피아의 최종무(상대 63),

조지아의 성성모(사대 67), 뉴욕의 손병우(문리대 69)·최형무(법대 69), 시카고의 윤봉수(간호대 69) 동문, 그리고 18대 동창회장 출신 지역인 미네소타에서 송창원(문리대 53) 동문과 문성인·박현아(공대 88) 동문 부부가 새로 종신이사가 됐다.

“미주동창회가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동문들이 후원금을 보내면서 전한 말이다. 제 18대 미주동창회는 각 지역의 나눔 사업을 지원하고 기존의 SNUAA 포럼과 창업가 네트워크에 더해 AI디스커버리 클럽과 회고록 집필을 돕는 ‘마이웨이’를 신설해 매달 4개의 줌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EDGE위원회를 새롭게 출범시켜 젊은 창업 동문들의 네트워킹을 지원해 올해에만 제1회 라스베이거스 SNUAA 글로벌 커넥트@CES와 샌프란시스코 SNUAA EDGE 2026 등 두 차례의 대규모 동문 행사를 개최했다.

제 18대 미주동창회는 동문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에 보답하고자 앞으로도 동문 간 교류와 네트워킹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글·디자인=이소란(미대 96) 미주동창회 총무국장

다이아몬드 (\$100,000 이상)	
신의석 (공대53)	필라델피아
플래티넘 (\$50,000 이상)	
김일영 (의대65)	남가주
골드 (\$10,000 이상)	
강애드워드 (사대60)	뉴욕
강재호 (상대55)	북가주
김용재 (의대60)	남가주
오세경 (약대61)	뉴잉글랜드
실버 (\$5,000 이상)	
김수영 (사대57)	남가주
이승화 (공대03)	북텍사스
조용원 (문과대66)	남가주
홍성선 (약대72)	남가주
종신이사 (\$3,000 이상)	
김홍묵 (문리대60)	남가주
문성인 (공대88)	미네소타
박우삼 (의대54)	플로리다
박현아 (공대88)	미네소타
성성모 (사대67)	조지아
손병우 (문리대69)	뉴욕
송창원 (문리대53)	미네소타
윤봉수 (간호대69)	시카고
최종무 (상대63)	필라델피아
최형무 (법대69)	뉴욕

“SNUAA EDGE, 모교·총동창회와 협력해 연례 행사로 만들 것”

(1면 SNUAA EDGE에서 계속)

이번 행사는 세대를 넘어, 전공을 넘어, 지역을 넘어 연결되는 서울대 동문 네트워크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한 자리였다. 동문회 입장에서도 이번 행사를 계기로 1990년대 이후 학번 가운데 새롭게 동창회비를 납부하는 동문이 80여명 늘었다는 점은 매우 값진 성과였다.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행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행사 주최자인 미주동창회(황효숙 회장)를 비롯해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이준식 회장), 뉴욕동창회(김병순 회장), 남가주동창회(양수진 회장), 북가주동창회(김범섭 회장), 미네소타동창회(문성인 회장)에서 보내주신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의대 52학번으로 뉴욕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해암 대선배님, 실리콘밸리에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Moloco의 안익진 대표(컴퓨터공학 97), Chartmetric의 조성문 대표(전기공학부 96) 등 많은 분들의 후원은 이번 행사가 첫 행사임에도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결실을 맺고 의미 있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힘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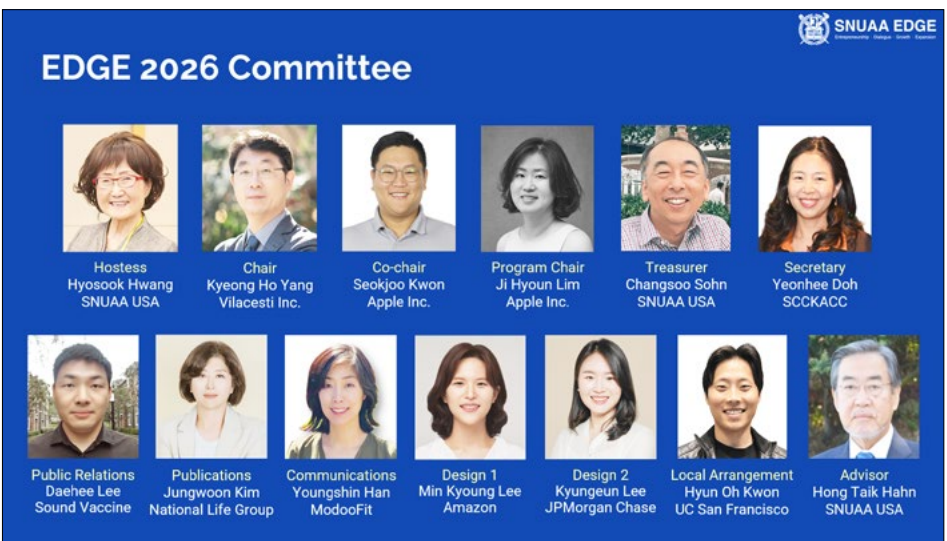
이번 행사에서 특별히 추진한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는 ‘타주에서 항공편으로 참석하는 젊은 동문들을 선배 동문들이 후원하는 ‘세대 간 항공비 지원 프로그램’이었다. 첫 시도인 이번 행사에서

는 2000년대 학번 후배 8명이 7명의 선배 동문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 더욱 발전한다면, 지역적 거리를 넘어 선후배 간의 만남과 교류를 확대하는 의미 있는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준비위원회는 이번 SNUAA EDGE를 일회성 행사가 아닌 매년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본교 및 동창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미국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동문들의 참여를 확대해 세대와 지역을 넘어 서로 연결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SNUAA EDGE가 앞으로 더 많은 만남과 협력,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젊은 동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동창회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바쁜 일정에도 시간과 정성을 모아 SNUAA EDGE 2026의 성공적인 개최를 이끌어낸 권석주 부위원장(산업공학 08), 임지현 프로그램위원장(산업공학 96)을 비롯한 모든 준비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계속하여 세심하게 여러 일을 챙겨 주신 황효숙 미주동창회장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SNUAA EDGE 2026 행사의 자세한 내용은 <https://edge.snuaa.org/2026summer/> 에서 볼 수 있다.



SNUAA EDGE 2026의 성공적인 개최를 이끌어낸 위원회 위원들.



SNUAA EDGE 2026를 후원한 동문 기업과 단체들.

서울대 동문이기에 ... 세대·전공·경력 넘어 하나로

윤정아 편집위원의 SNUAA EDGE 2026 현장 스케치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 동안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된 SNUAA EDGE 행사장에는 60년대 학번부터 20년대 학번까지 무려 반세기를 아우르는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등록 인원 100명을 훌쩍 넘긴 이번 자리는 준비위원회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고 한다.

“금요일 리셉션에 30명, 많아야 50

수 있어 좋았다”고 전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나이 차를 무색하게 만드는 대화의 밀도였다. 벤처 CEO가 갖 박사과정에 들어간 후배에게 스타트업을 시작한 이유가 “애가 하면 나도 한다”는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어 주어 도전의 문턱을 낮춰주고 싶었다는 진솔한 마음을 전하는 장면, 대기업에서 사내 신사업을

벤처캐피털 심사역과 예비 창업자가 명함 교환 스피아웃 대표가 박사과정 학생에게 채용 조언

명 을 줄 알았는데 70명 가까이 오셔서 저녁 인원을 급히 다시 맞췄다”는 준비위원의 말에서 만남의 장에 대한 동문들의 갈증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인터뷰를 위해 만난 열다섯 명 남짓의 동문들은 저마다 다른 시간의 좌표에서 서울대를 통과해 왔다. 어떤 이는 졸업 후 곧장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어떤 이는 한국에서 벤처기업을 운영하다가 우연히 이 행사 소식을 듣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한 참석자는 “여기 오신 선배님들이 이룬 것보다, 실패하고 다시 일어난 과정을 듣는 게 더 좋았다”고 말했고, 갖 박사과정을 시작한 후배는 “정해진 트랙(대기업 아니면 교수) 만을 생각했는데 그 틀을 깬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을

이끄는 40대 동문이 20대 유학생에게 벤처 생태계 인맥을 선뜻 연결해주겠다고 나서는 장면은 이 행사가 단순한 친목 모임 이상의 무언가임을 보여주었다.

여러 참석자가 공통적으로 언급한 단어는 “소속감”이었다. 한 참석자는 “미국에서는 인종도, 문화도, 배경도 다 다르니 비교에서 자유로워져서 좋지만 그만큼 소속감이 없어 외로웠는데, 여기 오니 서울대라는 하나의 공통분모로 서로가 서로의 곁을 다정하게 채워주어 갈증이 다소 풀리는 것 같다”며 웃었다.

늦선 도시에 이제 막 정착한 유학생은 “혼자 왔는데 생각보다 훨씬 친절하시고 말이 잘 통해서 신기했다”고, 출장 중 우연히 참석한 박사과정 연구



금요일 리셉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젊은 동문들. 활기찬 표정에서 동문회의 새로운 내일을 엿볼 수 있다.

원은 “이렇게 많은 동문이 실리콘밸리에 모여 있는지도 몰랐다. 다들 뭔가 이루려는 열정과 욕심이 느껴져 한국에서 만나는 동문들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고 전했다.

이 신뢰는 단순한 정서적 위안에 그치지 않았다. 벤처캐피털 심사역과 예비 창업자가 명함을 교환하고, 스타트업 대표가 박사과정 학생에게 채용 조언을 건네고, 대기업 임원이 후배의 창업 아이템에 시장 인사이트를 제공하겠다고 나서는 장면들이 세션 사이사이, 그리고 로비 곳곳에서 이어졌다. 동문이라는 이름이 만들어내는 신뢰는 낯선 사람 사이의 거리를 단숨에 좁히고, 정보와 아이디어가 스파크처럼 튀어 오르는 촉매가 되고 있었다.

한 참석자는 “1박 2일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100명 중 20명과 겨우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가는 정도로

여전히 짧게 느껴진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준비위원회는 벌써 다음 모임을 구상하고 있다. 내년에는 동서부를 오가며 열자는 논의, 선배들이 후배들의 항공편을 지원해 참여 장벽을 낮추자는 아이디어까지, 이 모든 것이 첫 행사의 성공이 만들어낸 여진이다.

낮선 땅에서 자신의 길을 홀로 개척해 온 이들에게 “서울대 동문”이라는 세 글자는 세대도, 전공도, 경력도 뛰어넘는 하나의 접속점이 되어 주고 있었다. 다음 EDGE 행사에서는 더 많은 동문들이 이 접속점 위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오래된 인연을 재확인하는 값진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미주 동문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 자생적인 커뮤니티를 계속 키워 나가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글=윤정아(소비자학과 95)



성함, 기부액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손창수 재무국장 : 320-224-8276

Check payable to:
UAA USA
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EDUCATIONAL | CHARITABLE | NETWORKING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공헌 활동

세계를 잇는 동문 네트워크 구축

황효숙 미주동창회장, 북가주 지부 방문

따뜻한 만남으로 교류와 협력의 시간 가져

SF 매스터 코랄 공연 관람·나눔 활동 후원 약속

미주동창회 황효숙 회장은 각 지부의 활동 현황을 살피고 동문들의 생활 현장의 경험을 직접 듣기 위한 지부 방문의 일환으로 8월16일 북가주 지부를 찾았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활기차고 트렌디한 Hayes Valley Neighborhood에 있는 Italian Restaurant Doppio Zero에서 전통적인 남부 이태리 퀴진으로 점저를 하며 김범섭 (공79) 북가주 회장단을 비롯한 여러 동문들과 따뜻한 환담을 나누며 뜻깊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 지역은 취향이 높은 부티크들과 세계적 문화권의 레스토랑들이 가득한 중심지로서 최근에는 최첨단 테크 기업가들과 AI 스타트업 회사들의 핫스팟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곳이라고 임승쾌 (문66) 동문회 이사장이 소개했다. 북가주의 현황과 지부의 활기찬 활동 모습을 접하며, 북가주 지부가 지역 사회와 동문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훌륭히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범섭 회장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북가주 지부 동문회는 조직적으로 튼튼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최승희 (상81) 동문이 12년간 지속적으로 리드한 하이킹 클럽, 골프 클럽 등 활발한 지부 활동과 젊은 동문들의 활동에 대한 지부 후원 등 지도부의 헌

신적 노력으로 결속력과 단합력이 좋은 지부로 성장하고 있다. 동문들의 표정에 비친 친밀감은 북가주 지부의 끈끈한 유대감의 깊이를 말해주고 있었다.

북가주 지부 방문의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는 세계적인 데이비스홀 (Louis M. Davies Symphony Hall)에서 개최된 “샌프란시스코 매스터 코랄 (San Francisco Master Chorale)”의 광복절 기념 음악회 관람이었다. 모차르트의 Requiem 전곡 연주와 베르디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의 숭고함에 감동하여 청중들이 눈물을 흘린 감동의 음악회였다. 매스터 코랄은 정지선 (상58) 단장을 비롯해 안현수(상66) 이사장 등 북가주 서울대 동문들이 주요 역할을 맡아 매년 훌륭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무대 위와 뒤에서 빛나는 북가주 동문들의 헌신과 열정에 큰 박수를 보낸다.

정지선 매스터 코랄 단장은, 황 회장과 대화에서, Master Chorale은 음악을 통해 한인 사회의 문화적 활동을 촉진하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전파하며, 미국 주류 사회와 한인사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한 음악연주를 통하여 사회적 나눔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Oakland 지역 홈리스들을 돕기 위한, 교도소 수감자들을 위한 베네티 연주회를 했다



SF 매스터 코랄 공연장을 찾은 황효숙 회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김범섭 북가주 회장, 최승희 동문, 안현수 매스터 코랄 이사장(맨 오른쪽).



고 하였다. 이에 감명을 받은 황 회장은 미주동창회의 2차년도 나눔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공연을 위해 재정적 후원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황효숙 회장은 따뜻하게 맞아주신 북가주 지부 김범섭 회장과 동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12월에 열리는

연례 송년행사에 북가주 지부에서 가장 나눔실천을 잘하신 동문에게 나눔 실천상을 드릴 예정이다. 미주동창회는 앞으로도 북가주 지부의 발전과 동문간 끈끈한 연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북가주 지부 방문을 마쳤다.

샌프란시스코 매스터 코랄 이끄는 정지선 단장·안현수 이사장

SF 심포니 홀서 화합의 대합창...한인 문화 위상 높다

광복 81주년 기념 모차르트 ‘레퀴엠’ 전곡 공연

150명 합창단원의 웅장한 하모니, 뜨거운 감동

지난 8월 16일 저녁, 샌프란시스코의 데이비스 심포니 홀(Davies Symphony Hall)은 1,700여 명의 관객이 보내는 뜨거운 환호와 감동으로 가득 찼다.

광복 81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샌프란시스코 매스터 코랄(SF Master Chorale)의 정기 연주회는 이민 사회 역사상 보기 드문 대규모 연합 합창 축제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 웅장한 무대의 중심에는 샌프란시스코 한인 커뮤니티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30여 년 가까이 봉사를 이어온 자랑스러운 서울대 동문들이 있다. 바로 정지선 단장(상대 58)과 안현수 이사장(문리대 67)이다.

1989년 ‘에클레시아’라는 작은 성가대로 출발한 매스터 코랄은 2001년 지역 사회 후원 유치 및 커뮤니티 외연 확장을 위해 현재의 명칭으로 재선포하며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오래된 한인 합창단으로 자리매김했다. 2000년부터 26년째 단장직을 수행하며 합창단을 묵묵히 이끌어온 정지선 단장과, 2023년 말 이사장으로 취임해 든

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안현수 이사장의 리더십은 이번 연주회에서 단연 빛을 발했다.

이번 데이비스 홀 연주회는 여러 단체 간 담장을 허물고 연합과 화합의 정신을 실현한 뜻깊은 자리였다. 정지선 단장은 지역 내 소규모 합창단과 개별 단원들의 협력을 끌어냈고, 이에 응한 150여 명의 합창단원과 풀 오케스트라가 무대에 함께 올랐다. 이들은 이민 사회에서 쉽게 엄두를 내기 어려운 모차르트의 ‘레퀴엠(Requiem)’ 전곡을 완벽하게 소화해 내며 객석에 깊은 울림을 전했다. 앙코르곡으로는 베르디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과 가곡 ‘그리운 금강산’이 울려 퍼져 관객들에게 몽클한 감동을 선사했다.

매스터 코랄의 본질은 무대 위 화려함에만 그치지 않는다. 순회 연주는 물론 교도소 사역과 노숙인 쉼터 찬양 봉사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한 봉사와 선교 활동을 지속해 왔다. 정 단장은 “재소자나 소외된 이웃들 앞에서 노래할 때 느끼는 감동과 은혜야말로 합창단을 이끌어가는 큰 힘”이



샌프란시스코 매스터 코랄의 정지선 단장(오른쪽)과 안현수 이사장.

라며 회고했다.

인터뷰 내내 정지선 단장과 안현수 이사장이 건넨 이야기의 바탕에는 이들과 든든하게 동행하는 이사진과 후원자의 헌신이 깊게 깔려 있었다. 아프리카 의료품 지원 및 북한 미니스트리 협업 등 헌신적인 봉사와 선교 활동의 최전선에서 발로 뛰는 이재민 이사(크로스 선교회 대표), 합창단이 지닌 커뮤니티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다민족과의 연대 및 문화 센터 건립이라는 원대한 청사진을 밝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그려내는 김건호 이사 외에도 민혜경 이사, 김건근 이사. 제시카 김 부단장 등 여러 이사 및 임원들은 물론, 후원을 아끼지 않는 이종문

회장을 비롯한 여러 후원자들 덕에 매스터 코랄의 미래는 더욱 넓은 세상을 향하고 있다. 이들의 아름다운 동행이 야말로 매스터 코랄을 움직이는 진짜 동력이자, 이번 대공연을 성공으로 이끈 진정한 하모니의 열매라고 두 동문은 입을 모았다.

오랜 세월 아름다운 화음으로 이민 사회의 아픔을 달래고 희망을 노래해 온 정지선 단장과 안현수 이사장. 이들이 지휘하는 샌프란시스코 매스터 코랄의 울림이 북가주를 넘어 전 세계 한인 사회와 글로벌 커뮤니티에 따뜻한 빛과 평화로 전해지길 응원한다.

글·사진=윤정아(소비자학과 95) 편집위원

동문 공동체가 먼저 듣고, 함께 만드는 새로운 돌봄

미주동창회, 동문 고령층의 외로움과 마음건강을 위한 AI 기반 지원 프로그램 개발

이희운(농대 84) 미주동창회 사무총장
조지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연구부학장

겉으로 보이지 않는 깊어지는 외로움

단발성 친교 넘어 지속적 돌봄 구조 필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신 서울대학교 동문 선배님들은 각자의 분야와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은퇴,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과의 사별, 자녀와의 거리, 건강과 이동의 어려움, 영어 사용의 부담, 사회적 역할의 변화가 겹치면서 인간관계가 줄고 마음속 외로움이 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정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도, 하루 동안 누구와도 충분히 대화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속마음을 편하게 나눌 사람이 없는 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기분이 쓸쓸한 상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장기간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우울과 불안, 신체 건강의 악화, 인지기능 저하, 삶의 의미 상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민 1세대 한인 고령자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 정신건강에 대한 낙인, 서비스 정보 부족 때문에 도움이 필요해도 적절한 지원을 찾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여름 미주동창회 평의위원회와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둘러싼 논의에서도 단발성 친교 행사를 넘어, 동문 공동체가 서로를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바로 그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사람을 대신하는 기계 AI가 아니라

사람을 다시 연결하는 다리가 되도록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미국에 거주하는 고령 동문들의 외로움과 마음건강, 노년기의 삶과 기술 사용 경험을 깊이 이해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와 언어에 맞는 AI 기반 디지털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AI 프로그램은 사람을 대신하는 기계 상담사가 아닙니다. 외로운 순간에 대화를 돕고, 우울·불안과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활동을 안내하며, 노년기 정신건강과 인지건강 정보를 쉽게 제공하고, 가족 및 동문과의 연결을 촉진하는 ‘디지털 동반자’에 가깝습니다. 필요할 때는 전문기관이나 사람의 도움으로 연결하는 안전장치도 중요한 설계 원칙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기술을 먼저 만들어 놓고 선배님들에게 사용을 권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배님들이 실제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기능은 도움이 되고 어떤 기능은 불편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운지를 먼저 듣고 프로그램의 방향을 정하려 합니다.

첫 단계는 약 25명의 선배님을 만나는 일

25명 대상으로 개인 심층 인터뷰 진행 계획

연구팀은 미국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서울대학교 동문 약 25명을 대상으로 개인 심층 인터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터뷰는 한국어로 약 45~60분 동안 이루어지며, 참여자가 편한 방식에 따라 대면 또는 화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편안한 대화 형식으로 여쭙게 됩니다.

· 은퇴와 이민생활, 가족관계와 동문관계 속에서



서울대 미주동창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희운 조지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지난 6월 열린 미주동창회 평의위원회에서 AI 기반 디지털 돌봄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험하는 외로움과 연결감

- 마음이 힘들 때 사용하는 대처방법과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지원
- 건강, 기억력, 인지기능 및 노년기 삶에 대한 걱정과 필요
- 스마트폰·인터넷·AI 사용 경험과 기술에 대한 기대 또는 우려
- AI 기반 프로그램에 꼭 들어가야 할 기능, 피해야 할 기능과 안전장치
- 동문 공동체가 서로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

참여는 전적으로 자발적이며, 원하지 않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터뷰 내용은 연구 목적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기사나 보고서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녹음이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구합니다.

선배님들의 말씀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인터뷰는 이야기를 듣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연구팀은 약 25명의 경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필요와 어려움, 보호요인, 기술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다음의 구체적인 산출물로 이어집니다.

- 미주 서울대 동문 고령층의 외로움·마음건강·사회적 연결·기술사용에 관한 요구도 보고서
- 선배님들의 언어와 문화, 세대 경험을 반영한 AI 기반 디지털 지원 프로그램의 설계 원칙
- 대화형 정서지원, 스트레스 대처, 인지건강 교육, 가족소통 및 서비스 연결 기능을 담은 초기 프로그램 또는 프로토타입
- 동문을 대상으로 한 사용성·실행가능성 검토와 후속 효과평가 계획
- 장기적으로 한인사회와 다른 이민자 고령층에도 적용할 수 있는 문화 맞춤형 디지털 돌봄 모델

개발 결과가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다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선배님들의 평가와 조언을 반복적으로 반영하면서 안전하고 사용하기 쉬우며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왜 서울대 미주 동문 공동체에서 시작할까요?

서울대학교 미주 동문회는 다양한 전공과 직업, 지역, 이민 경험을 가진 선배배가 연결된 귀중한 공동체입니다. 이 안에는 삶의 지혜와 전문성뿐 아니라 서로를 돌보고 사회에 기여해 온 전통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문 공동체는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발견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해법을 함께 만들 수 있는 좋은 출발점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동문만을 위한 서비스에 머물지 않습니다. 동문 선배님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모델

이 검증되면, 도움이 더 절실하지만 자원과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미주 한인 고령자와 가족에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대인으로서 받은 배움과 기회를 다시 사회에 돌려주는 실천이자, 동문 공동체의 지식과 경험을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하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공동체의 미래 바뀐다

선배님들의 솔직한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연구팀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은 ‘좋은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솔직하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평소 외롭지 않다고 느끼는 분, 기술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분, AI에 회의적인 분의 목소리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경험이 포함되어야 일부 사람에게만 맞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더 많은 고령자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참가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뷰 참여 안내

대상: 미국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서울대학교 동문

인원: 약 25명. 동문 명단을 이용하여 70세 이상 선배님께 이เมล을 드릴 것 입니다. 또한 아래 전화번호나 이เมล을 이용하여 참가신청을 해 주셔도 됩니다.

방법: 한국어 개인 인터뷰, 약 45-60분 / 대면·전화·화상 중 선택 (선호 한다면 카메라 끄고 진행)

참여: 자발적 참여, 질문 건너뛰기 및 언제든 중단 가능

문의: 이희운 서울대 미주 동창회 사무총장/조지아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heeyunlee@uga.edu, 612 250 1832.

본 연구는 조지아대학교 연구 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선배님 한 분 한 분이 살아오신 시간과 관계, 이민의 경험, 마음의 언어를 저절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지식은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단순한 설문조사가 아니라, 미주 동문 공동체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서로를 돌볼 것인지 함께 설계하는 첫걸음입니다. 선배님의 한마디가 프로그램의 한 기능이 되고, 한 분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의 외로움을 덜어 주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돌봄을 함께 만드는 이 뜻깊은 여정에 선배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AI와 함께하는 회고록 쓰기 모임 ‘My Way’ … 박상근(법대 75) 미주동창회 차기 회장

AI를 활용해 동문들의 소중한 회고록(memoir) 집필을 돕기 위해 서울대 미주동창회(회장 황호숙)가 마련한 온라인 모임 ‘My Way’의 세 번째 주인공은 박상근(법대 75) 미주동창회 차기 회장이다.

지난 6월 남가주 한호동(공대 58) 동문이 ‘My Journey from SNU to UCLA’를 이야기하며 첫 테이프를 끊었고 7월에는 필라델피아 김현영(수의대 59) 동문이 ‘과테말라에 피어나는 진리: Veritas Lux Mea (아메리칸 드림을 넘어 킹덤 드림으로)’를 통해 자신의 삶의 여정을 풀어내며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어 지난 8월 19일 열린 세 번째 모임에서는 박상근 차기 회장이 ‘꿈에서 시련으로, 시련에서 사명으로’ 이어진 자신의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을 동문들과 진솔하게 나누었다. 이날의 이야기는 구글의 맞춤형 AI 앱 제작 플랫폼인 오퍼(Opal)를 활용해 1차 초안으로 정리됐으며, 이후 박 차기회장이 다듬어 ‘나의 길 - 낯선 땅에서 다리를 놓으며’(부제: 서울에서 워싱턴까지, 법과 공동체 속에서 걸어온 길)이라는 제목의 회고록 한 챕터로 완성됐다.

서울대 미주동창회가 진행하는 ‘My Way’ 모임은 장윤정(법대 84) My Way 위원장의 진행으로 매달 셋째 주 수요일 오후 5시(서부시간) 줌으로 열린다. 참여를 희망하는 동문은 미주동창회 웹사이트(snuuaa.org) 우측 중간에 있는 ‘My Way’ 배너를 클릭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나의 길 — 낯선 땅에서 다리를 놓으며

서울에서 워싱턴까지, 법과 공동체 속에서 걸어온 길

박상근 (법대 75)
미주동창회 차기 회장

얼마 전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의 ‘My Way Forum’에서 제 삶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한 시간 남짓 지나온 길을 말하고 나니, 그것은 성공담이라기보다 수많은 우회와 선택, 그리고 그때마다 내게 손을 내밀어 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대개 앞만 보며 살아간다. 그러나 가끔 뒤를 돌아보면, 당시에는 실패나 지연으로만 보였던 일이 오히려 다음 길을 열어 준 디딤돌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나는 서울에서 성장했다. 어린 시절의 우리 집도 비교적 부유한 가정이었다. 아버님의 병환을 빼놓고는 그다지 부족한 것이 없이 자라났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내게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쉽게 지나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을 길러 주셨다. 훗날 변호사로서 이민자와 소상공인, 교회와 비영리단체의 문제를 맡을 때 법률문서 뒤에 숨어 있는 한 사람의 절박함을 먼저 보게 된 것도 그 시절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1975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고 1979년 법과대학원에 진학했을 때, 나의 첫 꿈은 법을 연구하고 후학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모교에서 받은 교육은 단순히 법조문을 익히는 과정이 아니었다. 사회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지, 지식인은 시대와 공동체 앞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묻는 시간이었다.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교훈도 그때에는 귀에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표어처럼 들렸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는 질문이 되었다.

대학에 들어가기 전부터 더 넓은 세계에서 공부해 보겠다는 결심을 했고, 1981년 8월 6일 미국 땅을 밟았다. 그 날은 새로운 출발의 날이었지만, 동시에 내가 얼마나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기 시작한 날이기도 했다. 미국에 도착한 유학생에게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었다.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면 내 생각과 능력까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신세계였다. 그래서 조그마한 집에서 하우스메이트인 다른 로스쿨에 다니는 미국인들과



박상근 차기 회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워싱턴 DC 동창회장을 한 2021년 임원진 크리스마스 파티 모습. 오른쪽은 박상근 차기 회장 부부와 워싱턴DC 지부 김지인 동문.

국제법 유학생에서 학업 접고 생업 전선으로

이민자 고단한 삶 속에서 교과서 밖 미국 배워

변호사 되어 신앙 속에서 좋은 공동체 위해 봉사

이제 나에게 묻는다 “앞으로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함께 생활하며 언어와 문화를 몸으로 익히려 했다. 교실에서는 한 문장을 놓치지 않으려 긴장했고, 수업이 끝나면 다시 책과 씨름했다. 조지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비교법 석사학위를 받고, 이어 국제법 석사과정을 마쳤지만 학위만으로 생활과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다.

석사학위를 마치고 법학의 박사과정인 S.J.D.(Science of Judicial Doctor)에 입학했지만 가정의 큰 어른께서 사기를 당하며 집안이 경제적 파탄에 이르러 도저히 공부를 계속할 수 없었다. 당장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고, 생업에 전념하며 학비를 벌어보려 했다. 택시 운전이나 커피 디스트리뷰터 관련 일을 비롯해 법률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일들도 했다.

당시에는 왜 이렇게 멀리 돌아가야 하나 싶었지만, 그 시간은 미국 사회를 교과서 밖에서 배우게 해 주었다. 사람의 말투와 표정, 돈을 벌고 가족을 지키려는 평범한 이들의 고단함을 가까이에서 보았다. 나중에 이민자 고객을 대할 때 그들의 서툰 영어 뒤에 있는 능력과 자존심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

은, 나 역시 그런 이민자의 삶을 살아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나의 전공을 살려 법률회사를 지원해 보았지만 국제법을 공부한 한국인 유학생이라는 배경만으로 나를 기다리는 자리는 없었다. 결국 미국 법률교육을 보완하고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길을 택했다. 주변의 격려와 도움을 받아 한 단계씩 준비했고, 1988년 워싱턴 DC., 1989년 버지니아, 1991년 메릴랜드 변호사 자격을 차례로 취득했다.

1988년 문일룡 변호사와 인연을 맺어 함께 일하기 시작한 것은 내 법률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1992년 이후부터는 파트너로 일하며 실무를 배웠고 오랫동안 함께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게 되었다. 2024년 말에는 새로운 동료와 함께 Park & Woo, PC를 출범시켰다. 지금 돌아보면 변호사 자격증을 얻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고객의 신뢰를 얻고 지켜가는 일이었다.

법률실무는 책 속의 정답을 현실에 적용하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 같은 사건도 당사자의 사정과 사실관계를 얼마나 세밀하게 듣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이 된다. 발표 때 소개했던 한 교회 장로님의 교통사고도 그랬다. 겉으로는 난폭운전 티켓 한 장이었지만, 당시 딸의 출산과 관련된 급박한 사정까지 충분히 듣고 나서야 사건의 온전한 맥락이 보였다. 그 경험은 내게 ‘사건을 판단하기 전에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라’는 원칙을 다시 가르쳐 주었다.

내 업무의 상당 부분은 한국과 미국, 두 제도와 문화가 만나는 지점에 놓여 있었다. 이민과 주방, 사업체 매매와 부동산, 상속과 증여, 기업과 비영리단체의 운영 문제를 다루면서 법률의 차이만큼이나 사고방식의 차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살던 한 고객의 사망 후 양국의 가족관계와 재산이 얽힌 상속문제를 처리했을 때도, 필요한 것은 한 나라의 법만 아는 기술자가 아니라 두 제도를 함께 이해하고 가족들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해 줄 사람이었다.

입양인의 국적과 주방 문제처럼 법만으로는 쉽게 풀리지 않는 일도 있었다. 어린 시절 미국에 왔지만 시민권 취득 절차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아 정체성과 체류자격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며, 제도의 빈틈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얼마나 무겁게 짓누를 수 있는지 절감했다. 이런 사건들은 변호사의 역할이 승패를 가르치는 데만 있지 않고, 서로 다른 제도와 사람 사이에서 이해 가능한 언어를 만들어 내는 데에도 있음을 깨닫게 했다.

미국에서 자리를 잡은 뒤 나는 지역 사회와 인권 문제에도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었다. 페어팩스카운티 인권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



코로나로 시작해 6년 ... 줌으로 매주 만나 배우고 나누다

최종무(상대 63) 동문과 서울고 15회 동기들의 줌 모임

필라델피아 최종무(상대 63) 동문은 매주 한 번씩 줌(Zoom)으로 고등학교 동기들과 만난다. 1963년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한 15회 동기들로, 줌 모임에 꾸준히 참여하는

인원은 20명이며 이 가운데 12명이 서울대 동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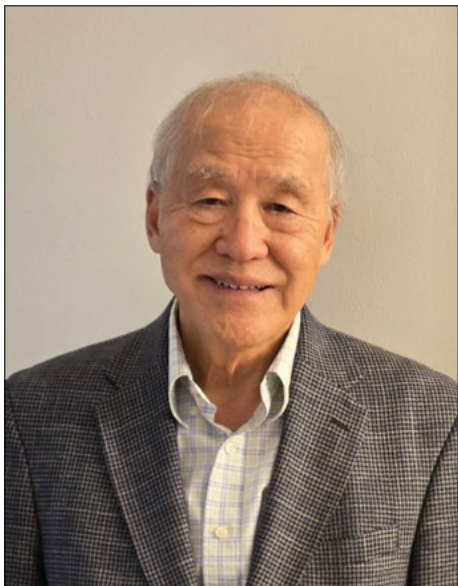
코로나 팬데믹으로 직장 and 학교, 각종 사회적 교류가 사실상 중단되었던 2020년 4월 첫 화상 만남을 시작한 이래, 6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매주 한 차례씩 줌을 통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모임의 진행 방식은 간단하지만 알차다. 처음 20여 분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근황을 공유한다. 이어 동기 한 명이 발표자로 나서 자신의 전문 분야나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2020년 3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4월 초 모든 강의를 줌으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부랴부랴 줌 사용법을 익혀 강의를 시작했는데, 다들 집에 갇혀 지내다 보니 서로 소식도 궁금하고 마땅히 할 일도 없어서 처음엔 뉴욕에 있는 친구와 둘이서 줌 미팅을 시작했지요. 점차 다른 친구들에게도 사용법을 알려주면서 마침내 4월 8일 동기 6명이 함께 첫 줌 모임을 열게 됐습니다.”

최종무 동문은 “그로서리도 가기 힘들었던 때라 처음 2~3주는 아마존에서 씨앗을 주문해 일주일이면 싹을 틔워 먹을 수 있는 채소 경작법이나 바다 낚시 등 마켓에 가지 않고도 구할 수 있는 먹거리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눴다”면서 “그러다 특정 주제를 정해 이야기를 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자연스럽게 각자 관심있는 주제를 준비해 와서 발표하는 자리로 발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한국에 있는 동기들이 각각 양국의 코로나 방역 시스템을 생생하게 전해줬고, 백신도 나오기 전이었는데 의사 친구들은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 이후 변화할 일자리와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까지 토론을 했으니 코로나로 세상이 온통 캄캄하던 시기에, 이 줌 모임은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코로나 위기를 건강하게 넘기고 다가올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해준 셈이다.

이 모임에는 필라델피아 최종무 동문을 비롯해 월서은행을 설립하고 초대 행장을 역임한 남가주의 임봉기(공대 63) 동문, 메릴랜드의 도상철(의대 63), 뉴욕의 노승만(공대 63) 동문과 강두수(문리대 63), 오학선(공대 65), 지금은 고인이 된 서석윤(문리대 63)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회적 교류가 봉쇄된 2020년 4월 시작해 6년 넘게 매주 줌 모임을 이어오고 있는 서울고등학교 15회 동기들. 필라델피아 최종무(왼쪽 사진)이 모임을 이끌며 지금까지 다양한 주제로 42번의 주제 발표를 했다.



참가자 20명 중 미주 각지와 한국의 서울대 동문 12명 소소한 일상 나눈 뒤 다양한 주제 발표하며 지적 교류 최종무 동문, 경제·투자·서재필 박사·AI 등 42차례 발표

동문 등 미주 각지의 동문들이 참여했다. 한국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장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술협력국장을 역임하며 ‘한국형 원전의 아버지’로 불리는 김병구(공대 63) 동문과 법무법인 세종 대표이자 대한변협회장을 지낸 신영무(법대 63) 동문 등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최종무 동문은 6년여 동안 경제, 투자, 세계경제질서, 비트코인 등 전문 분야인 국제 금융과 국제 경영 외에도 독립운동가이자 미국 의사인 서재필 박사의 미국 활동, 이승만 초대 대통령 시절, 시진핑 체제하의 중국, 20세기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이

자 소설가인 C.S.루이스 그리고 AI 등 다양한 주제로 총 42번에 걸쳐 발표를 하며 모임의 지적 깊이를 더했다.

“한 친구는 그리스에서 시작해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 자신이 여행한 유럽 각국을 한 나라씩 소개했는데 사진을 취미로 하는 친구답게 직접 본 것 보다 더 멋진 사진을 곁들여 여행 얘기를 들려주고, 또 어떤 친구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을 얘기하고, 한의사 친구는 깊이 있는 철학 얘기를 들려주고... 매주 모여 6년여를 이어오다 보니 참으로 다채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종무 동문은 지난해 40년간 봉직해 온 템플대학교 경영대학에서 퇴임하며 연례 교수회의 현장에서 동료 학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는 가운데 ‘평생 공로상’을 수상했다. 파이낸스와 국제 비즈니스 분야에서 150편의 논문과 저서를 펴낸 학문적 성취와 더불어 4000여 명의 제자를 길러내고 23명의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하며 후학 양성에 매진해 온 공헌에 학교 측이 보낸 깊은 감사와 뜻깊은 경의였다.

교수직에서 퇴임한 후에는 동창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미주동창회 종신이사로 가입하고 지난 6월 말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미주동창회 평의원회에도 참석했다. 뉴욕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법대 동창회장을 역임한 최형무(법대 69) 동문이 동생으로, 형제가 나란히 미주동창회 종신이사가 됐다.

글=신복례(인문대 83) 동창회보 편집장

➔ 하다가 부위원장까지 역임하게 되었고, 한인사회의 권익 옹호와 이민자·난민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교회와 비영리단체를 돕고, 한인 기독교실업인회인 북미주 KCBMC 회장으로 섬기며 신앙과 일터의 책임을 함께 고민했다. COVID가 한창이던 2021년 중반부터 약 2년 반 동안 서울대학교 워싱턴지부 동창회장으로 섬겼고, 이제 미주동창회의 더 큰 책임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직책들은 이력서에 한 줄을 더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민자로 살아오며 내가 받은 도움을 다음 사람에게 돌려주는 방식이었다. 좋은 공동체는 몇몇 헌신적인 사람의 희생만으로 오래갈 수 없다. 투명한 재정, 신뢰할 수 있는 제도, 정확한 회원 정보, 차세대가 들어올 자리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내가 동창회와 여러 단체에서 계속 고민해 온 것도 ‘내 임기가 끝난 뒤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오랜 세월 미국에서 살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내 조국이고 감성과 기

역의 뿌리이다. 한국의 역사와 소식을 접하면 마음이 움직이고, 서울대학교는 내 지적 고향으로 계속 남아 있다. 그렇다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 영구히 정착하는 삶을 쉽게 상상할 수도 없다. 미국은 내가 가족을 이루고 직업을 세우며 시민으로 책임을 배운 삶의 터전이 되었다. 젊은 시절에는 내가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 어느 쪽에 더 속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다.

어느 한쪽에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은 결핍이 아니라, 양쪽을 연

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요 가능성이다. 두 언어와 두 문화, 두 법체계를 오가며 살아온 삶은 나를 ‘변방인’으로 만들 수도 있었지만, 바로 그 경계에서 사람과 제도와 세대를 잇는 다리를 놓을 수 있었다.

내가 걸어온 길에는 자랑할 만한 성취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뜻대로 되지 않은 일, 생계를 위해 꿈을 미뤄야 했던 때, 낯선 언어 때문에 작아졌던 순간, 새로운 출발을 두려워했던 시간도 많았다. 그러나 길은 처음부터 완성되어 우리 앞에 놓이는 것이 아니었다.



박상근 차기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워싱턴DC 동창회 행사에서 동문들과 기타 연주를 하고 있다.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조금씩 생겼고, 돌아보면 때로의 우회로가 나의 삶에 필요했음을 깨닫게 된다.

‘My Way Forum’에는 발표하는 동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기록할 가치가 있는 시대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먼저 미국에 온 세대의 시행착오와 선택은 다음 세대에게 지도이자 이정표가 될 수 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성공뿐 아니라 실패와 두려움까지 솔직히 나눌 때, 동창회는 단순한 친목 단체를 넘어 서로의 삶을 이어 주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제 나의 인생 여정에 남은 질문은 ‘얼마나 더 이를 것인가’보다 ‘무엇을 남기고 누구에게 이어 줄 것인가’에 가깝다. 법률가로서 쌓은 경험, 이민자로서 겪은 시행착오, 신앙과 공동체 안에서 배운 책임을 다음 세대와 나누고 싶다. 서울대학교가 내게 가르쳐 준 진리의 빛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누군가의 다음 길을 밝히는 작은 등불로 건네는 것-그것이 아직 끝나지 않은 나의 길이다.

서울대 수석졸업에서 MIT·UCLA 박사, 맥킨지·MS AI 전문가까지

도전과 탐험으로 ‘My Way’를 걸어온 황민하(금속공학 91) 동문

윤정아 편집위원이 만난 실리콘밸리 사람들

사람의 것이라기엔 지나치게 다채롭다. 국가와 전공, 업계를 넘나든 그의 궤적은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라기보다, 매 순간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과 그에 응답한 과감한 도전의 연속이었다.

서울대 학사, MIT 공학 박사, UCLA 경영학 박사, 캐나다 맥길대 교수, 맥킨지 컨설턴트, 그리고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 AI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황민하 동문의 이력은 한

공학 박사 R&D 커리어 대신

금융 신용평가 모델 설계

황민하 동문(금속공학 91)은 3년 만에 서울대를 수석 졸업한 뒤 곧바로 MIT 박사과정에 진학했다. 원래 관심사는 상온 초전도체 연구였지만, 학부 시절 이미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신 전자 및 자성 재료 쪽으로 방향을 틀어 MIT 연구실을 선택했다.

하지만 “웨이퍼를 수백 장 깨뜨리며” 스스로 손재주가 없다는 사실을 절감했고, 우연히 참여한 NSF 지원 자성재료 물성 시뮬레이션 연구에서 컴퓨터공학 영역에 재능이 있음을 깨달았다. 이 경험은 훗날 그가 데이터 사이언스로 향하는 첫 단추가 됐다.

MIT 졸업 후 그는 안정적인 R&D 커리어 대신 맥킨지 서울 오피스를 택했다. 공학 박사 출신이라는 독특한 배경 덕분에 신용평가 모델링, 재무 밸류에이션 등 숫자 중심 프로젝트에 투입됐고, 한국 3대 은행의 신용평가 모델을 직접 설계하기도 했다. 대형 은행에서 임원급 이직 제안을 받기도 했지만, 그는 “타이틀과 연봉보다 성장과 배움”을 선택했다.

하지만 팀장이 되고 파트너 트랙에 오를수록 업무는 관리와 영업에 가까워졌고, “문제의 코어에서 멀어진다”는 느낌이 시달렸다. 그는 실행보다는 주로 전략 제안에 제한된 컨설팅에서 보다 나아가, 데이터에 근거해 실제 비즈니스 임팩트를 만드는 본질적 관심사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팀장·파트너는 내 길이 아냐”

UCLA 경영대 박사과정으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 대한 갈증은 그를 다시 학교로 이끌었다.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개념조차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2005년, 계량경제학에 강점이 있는 UCLA 경영대 박사과정에 진학했다. 그러나 두 번째 박사과정도 쉽지 않았다. 정해진 문제를 푸는 공학과 달리 “무슨 문제를 풀 것인가”부터 스스로 정의해야 하는 경제학적 접근법에 적응하느라 애를 먹었다. 지도 교수에게 “너무 실무적이다”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후 지도교수가 네덜란드 틸버그대로 이직하게 되어 그를 따라 국제 경험을 쌓았고, 이 시기에 아이 셋을 낳으며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치열한 시간을 보냈다. 2009년 금융위기 여파 속에 박사 학위를 마친 그는 캐나다 맥길대 교수로 임용되었으나, 실무와 괴리된 학계 분위기와 지나치게 정교한 구조조형 중심의 연구 풍토에 아쉬움을 느껴 2014년 맥킨지 미국 사무소



자신의 도전과 탐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황민하 동문.

로 복귀했다. 제너럴리스트가 아닌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 컨설턴트로 활약하기 시작한 그는 이후 솔루션 아키텍트로 역할을 바꿔 가며 재입사 후 7년을 맥킨지에 몸담았다. 이 기간 동안 그는 프라이싱, 프로모션, 어소트먼트 최적화 알고리즘을 실제 제품화해 다수의 기업에 적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빅테크 현장서 AI 혁신 경험

AI 자문·심사·패널·멘토 활동

2018년경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직한 그는 검색 엔진 Bing 팀에서 랭킹·추천 시스템을 담당했다. 이후 OpenAI와의 파트너십으로 Bing Chat이 출시되는 등 생성형 AI 붐의 최전선을 직접 경험했다. 현재는 M365 Copilot을 포함한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틱 AI 부서에서 합성 데이터 생성과 프라이버시 보호 기반 평가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 약 5년의 재직 동안 조직 내부의 우선순위 변화와 리더십 교체를 여러 번 겪으면서도, 그는 오직 “재미 있는 주제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자리를 옮겨왔다.

그는 업무 외에도 실리콘밸리의 여

러 한인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생성형 AI의 진짜 효과 측정”을 주제로 한 저술을 준비하는 한편, 서울대 공대 창업지원 프로그램 멘토를 맡고 있다. MIT 동문회에서 매달 ‘바이브 코딩’ 스터디를 운영해 자연어만으로 앱을 만들어 보는 실습을 이끄는가 하면, 최근에는 이를 발전시킨 ‘앱 인큐베이터’ 커뮤니티를 출범했다. SK 계열 AI 스타트업 연합체 자문위원, 글로벌 AI 해커톤 심사위원 등도 병행하며 AI를 주제로 한 각종 심포지엄과 컨퍼런스의 패널로도 참여한다.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만들어 주면 자연스럽게 재미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스스로를 AI 에이전트 시대의 “최대 수혜자”라 표현하는 그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단련된 문제 정의 능력과 구조화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여러 에이전트를 병렬 운영해 업무 효율을 높일 경우 “일은 줄어 들 수 있지만 오히려 더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역설을 짚어낸다. 반복 작업이 사라진 자리를 고강도의 의사결정이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부지런함을 발휘할 영역이 달라졌을 뿐”이라고 강조하는 그는, 자동화 가능한 일에는 힘을 빼고 핵심 판

단에 집중하는 ‘효율적 게으름’이야말로 진짜 혁신의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사람들 삶에 실질적 도움 되는

셀프 임프로빙 솔루션 창업 꿈

한국과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생태계 차이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대기업 중심의 국내 생태계는 신생 기업을 키우기보다 흡수하는 구조에 가깝고, 실패에 대한 낙인과 연대보증 관행이 도전을 억누른다고 지적했다. 반면 실리콘밸리는 실패 경험조차 자산으로 인정하는 문화 덕분에 과감한 도전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자신이 만드는 제품이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그는 향후 스스로 진화하는 ‘셀프 임프로빙(Self-improving)’ 프라이싱·인텔리전스 솔루션 스타트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포부를 드러냈다.

지나온 그의 모든 결정 기준은 한결 같다. “20~30년 후 돌아봤을 때 후회가 없어야 한다”는 ‘리그렛 미니마이제이션(Regret Minimization)’ 원칙이 바로 그것이다.

강화학습의 ‘탐험과 활용(Exploration & Exploitation)’ 개념을 자신의 커리어에 빗대며, 한 우물만 파는 대신 다양한 영역을 넘나드는 ‘탐험’을 택해 왔다고 설명한다. 그에게는 실패조차 “내가 싫어하는 것을 배운 유의미한 경험”이었다.

에이전틱 AI를 실생활에서 활발히 활용 중인 그도 여전히 스탠퍼드 AI 강좌를 수강하며 새로운 정보에 대한 배움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대 동문들에게 전하고픈 한마디를 부탁하자, 그는 “한국 최고라는 울타리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이름을 남기는 도전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안전보다 탐험을, 외부의 평가보다는 나만의 기준을 고수해 온 황민하 동문의 궤적은 변화의 시대에 방향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어 주고 있다.

글·사진=윤정아(소비자학과 95)



황민하 동문이 자신이 심사위원을 맡고 있는 글로벌 AI 해커톤 참여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 달 한 권, 어느새 54권 ... “조금 더 성장한 것 같아 뿌듯”

동창회 소모임 I 워싱턴DC 북클럽

책은 20권에 가까웠다. 그리고 2026년 8월 17일 워싱턴DC 북클럽 모임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참석 인원이 많을 때는 13명, 적을 때는 3명에 불과할 때도 거르지 않고 매달 모임을 이어 온 결과, 그동안 함께 읽고 토론한 책은 무려 54권으로 늘어나 있었다.

“혼자서는 읽어야지 하며 미루기 십상인데, 북클럽 덕분에 한 달에 한 권은 꼬박 읽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책을 읽었는데도 세대와 경험이 다른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가 읽지 못한 새로운 해석과 깨달음을 얻고, 꼼꼼히 읽고 자료까지 찾아오는 동문들의 이야기는 덤으로 얻는 선물입니다. 책 한 권 읽고 토론 한 번 했을 뿐인데, 모임을 마치고 나면 왠지 어제보다 조금 더 똑똑하고 성장한 사람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2023년부터 워싱턴DC 북클럽 모임을 이끌고 있는 김연주(자연대 90) 동문의 뿌듯함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소회다.

필자가 참석한 8월 17일 모임도 다르지 않았다. 이날은 김연주 동문을 비롯해 이철수(공대 61), 차효미(음대 63), 김은성(간호대 75), 조혜선(간호대 79), 한정민(생과대 87), 이주희(음대 89), 최성희(음대 89), 이영종(자연대 90) 동문 등 모두 9명이 함께했다. 이날 처음 참석한 최성희 동문을 제외하면 모두 그동안 꾸준히 자리를 지켜온 멤버들이다. 참고로 워싱턴DC 북클럽은 매달 셋째주 월요일 줌으로 만나며 1년에 두 차례 정도 대면 모임도 갖는다. LA에 거주하는 필자가 참석한 이날 모임 역시 줌으로 진행됐다.

북클럽의 8월 선정 도서는 마이클 핑켈(Michael Finkel)의 논픽션 《Art Thief》였다. 이 책은 1994년부터 약 7~8년간 프랑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스위스와 벨기에의 중소도시 박물관과 성당을 돌며 200점이 넘는 예술품을 훔친 스테판 브라이트바이저의 실화를 다룬 트루 크라임 논픽션이다. 대담한 범행 수법과 흥미진진한 사건 전개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며 큰 인기를 모았던 작품이다.

“저는 한 번 손에 잡고는 끝까지 읽어 내려갔을 만큼 정말 재미있었어요. 병원에서 통증 정도를 1부터 10까지 표현하라고 하잖아요? 이 책의 재미를 1부터 10까지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고 싶은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하면서 토론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이날 토론을 이끈 김은성 동문의 진행은 첫 질문부터 신선했다.

“책에 나오는 도난 작품을 하나하나 찾아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 찾아보며 읽었다”(7점), “재미는 있었는데 읽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7점), “두 번 읽었는데 처음엔 9점이었지만 다시 읽으니 나쁜 놈들이라는 생각에 6점으로 낮췄다”(6점), “범행 수법이 반복돼 조금 길게 느껴졌고 엔딩이 좀 풍성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6점)...

동문들의 각기 다른 솔직한 소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철수 동문의 뼈있는 한마디가 단번에 귀에 꽂혔다. “5점을 주겠다. 저자가 마음에 안든다. 뉴욕타임스 매거진의 기자였는데 기사 조작 스캔들로 해고된 뒤 기이한 범죄자들을 다루는 글을 쓰기 시작한 사람



지난 8월 17일 열린 워싱턴DC 북클럽 모임에 참석한 동문들이 열린 토론을 마친 뒤 환하게 웃으며 모임을 마무리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8월의 달 《Art Thief》와 9월에 토론할 《Lady Tan's Circle of Women》 책 표지.

2022년 출범 후 매달 셋째주 월요일 모임

한권의 책 읽고 토론하며 생각의 지평 넓혀

신선한 진행, 폭넓은 관점으로 풍성한 대화

이다. 차라리 픽션으로 썼다면 나았을 텐데 논픽션에서 상습적인 도둑을 가진 범죄자를 미화했다.”

김연주 동문이 말한 “꼼꼼히 읽고 자료까지 찾아오는 동문들의 이야기는 보너스”라는 말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이날의 토론 주제는 모두 7가지였다. 워싱턴DC 북클럽은 모임이 끝나면 곧바로 지역 동문 전체 단톡방에 다음 달 북클럽 참가 신청 링크를 올린다. 링크를 클릭하면 다음 달 읽을 책 소개와 함께 다른 동문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을 추천할 수 있고 모임에 앞서 토론 주제도 미리 공개한다.

1. 브라이트바이저를 예술 애호가라고 부를 수 있을까?
2. 작품을 팔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의 범죄를 조금이라도 덜 심각하게 만들 수 있을까?
3. 어머니의 행동은 모성애일까,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범죄인가?
4. ‘예술을 사랑하는 것’과 ‘예술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동문들의 대화는 작품 속 인물에 대한 심리 분석에 그치지 않았다. 미제로 남은 역대 박물관 도난 사건들에 대한 흥미로운 배경 설명이 이어졌고 왜 프랑스 알자스 지역과 벨기에, 스위스에서는 예술품 도난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갔다.

나아가 바티칸에 버젓이 서 있는 오

벨리스크나 대영박물관에 소장된 이집트, 그리스 유적들 역시 결국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장물’ 아니냐는 묵직한 논쟁에 대한 고찰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폭넓은 대화가 오고 갔다. “책 한 권 읽고 토론 한 번 했을 뿐인데, 모임을 마치고 나면 조금 더 똑똑한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했던 김연주 동문의 말이 다시 또 깊게 와닿았다.

워싱턴DC 북클럽의 다음 모임은 9월 셋째 주 월요일인 21일 오후 8시(동부시간) 열리며 참가를 원하는 동

문은 사인업 링크(<https://forms.gle/huhN6V668tTD5but69>)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9월에 함께 읽을 책은 중국계 미국인 작가 리사 시(Lisa See)가 2023년 펴낸 역사소설 《레이디 탄스 서클 오브 우먼(Lady Tan's Circle of Women)》이다.

중국 명나라 시대에 실존했던 여성 의사 담윤현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부장적 사회의 제약 속에서도 의술을 익혀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연대했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김연주 동문은 “줌 미팅이라서 책 읽기를 좋아하는 미주 다른 지역의 동문들도 참여할 수 있다”며 “책은 각자 읽더라도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글=신복레(인문대 83)
동창회보 편집장

“우리 북클럽, 이래서 좋아요”

회원들 한마디

▶이철수(공대 61)= 서로 다른 배경의 여러 회원이 자신의 경험담을 섞어서 이야기를 해주니 책 내용이 살을 붙인 것처럼 살아난다. 서로 상반되는 의견들도 거침없이 내어놓고 견주게 되니 에코 챔버(Echo Chamber)로 전락할 위험이 없는 클럽이다. 독서 생활에 맛을 붙이니 몇 가지 다른 취미 생활과 어울려 내 은퇴 생활에 리듬을 주고 매일 기대되는 하루하루를 살게 된다.

▶차효미(음대 63)= 북클럽이 아니었으면 전혀 관심이 없었을 분야

의 책을 읽고,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견문을 넓히고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 있어 유익하다. 때로는 책 내용이 아주 어렵고 분량이 많아서 힘에 겨웠지만 작은 목표라도 열심히 이행하면서 삶의 긍지도 키울 수 있었다.

▶한정민(생과대 87)= 서로 다른 성장 배경과 유전자, 삶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과 통찰을 얻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체계는 가장 큰 혜택이다. 또한 나 스스로를 북클럽에 묶어둠으로써 꽤 바쁘고 빠곡한 일상 속에서도 한 달에 한 권은 책을 읽게 되니, 그 또한 감사한 일이다.

UIC 서머 프로그램 참가, 모교 간호대 후배들 초청해 격려

시카고 지부

올해 7월에도 시카고 지부에 반갑고 기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University of Illinois Chicago(UIC)의 'Global Health Summer Program'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에서 방문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후배들입니다.

매년 시카고를 찾는 모교 간호대 후배들을 환영하고 격려하는 자리는 어느덧 우리 시카고 동문회의 따뜻한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 역시 이동균 회장을 비롯한 여러 동문 선배들이 한자리에 모여 후배들의 방문을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프로그램을 마친 이준민 학생(간호대 22학번)은 다음과 같이 시카고에서의 경험과 소감을 전해왔습니다.

"시카고는 미국의 대도시답게 매우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는 역동적인 곳이었으며, 이곳에서 수업을 들으며 미국의 의료 시스템과 의료 현장을 접하고 몸소 체험하는 좋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선배님들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라는 모두 같은 배경을 가지고 미국으로 오신 분들이지만, 이곳에 오신 뒤에는 서로 다른 다양한 일을 하시며 경험을 쌓아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저희는 학생 간호사들로서 선배님들의 미국 간호사 생활 이야기, 격려,



시카고 동문들이 7월 University of Illinois Chicago(UIC)의 'Global Health Summer Program'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에서 방문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후배들을 초대해 환영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함께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그리고 따뜻한 응원을 듣고 다시 한번 나이팅게일의 마음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시작해 미국 각지의 다양한 현장에서 길을 개척해 온 선배들과, 열정 어린 눈빛으로 미래를 꿈꾸는 후배

들의 만남은 서로에게 참으로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후배들의 진솔한 고백처럼, 선배들 역시 까마득한 후배들을 바라보며 간호사로서 처음 가슴에 품었던 나이팅게일의 초심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진심 어린 격려와 응원 속에서 동문

간의 두터운 정을 확인한 이번 만남이, 후배들의 앞날에 든든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계를 무대로 멋지게 도약할 모교 간호대 후배들의 앞날을 시카고 동문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응원합니다.

글=윤봉수(간호대 69)

“9월 26일 가을 피크닉, 12월 5일 연말총회 합니다”

미네소타 지부

차재호 동문 댁서 이사회 바비큐 즐기며 답소 나눠

미네소타 동창회(회장 문성인)는 지난 8월8일 토요일, 전전회장인 차재호 동문 댁에서 제2차 이사회 모임을 가졌다.

미네소타 지부는 학생, 연구원 및 포닥이 중심인 YM그룹과 이곳에서 정착해서 생활하시는 OM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사회는 OM그룹 중심으로 지부의 운영 방안과 예산을 결정하는 모임이다. 30여 명의 OM 그룹 동문과 가족들이 모여서 피크닉 바비큐 식사를 즐기며 답소를 나누었고 이사회 미팅을 가졌다.

미네소타 지부는 모든 지부 회원들이 참석하는 봄, 가을 피크닉과 연말총회가 가장 큰 행사이며 이와 관련된 사항들과 기타 지부 활동들을 이사회에서 토의한다.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시작한 활동은 소규모 그룹 모임의 활성화와 지원이다. 지역적 특성상 전체 모임에 참석하기 힘들거나 특정 관심분야를 가진 동문들이 주축이 되어 모임을 가질 경우 동문회에서 500불까지 지원을 해서 모임을 돕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 2500불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8월에 미주동창회에서 개최한 EDGE 행사에도 비슷한 취지에서 500불을 후원했다.



미네소타 동문들이 지난 8월 8일 차재호 전전회장 댁에 모여 제2차 이사회 모임을 갖고 가을 피크닉과 연말총회 등 하반기 주요 활동을 논의한 뒤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말총회에서는 항상 상품권을 추천해서 나누어 주는 전통이 있는데 올해에는 가능하다면 SNU Goods를 총동창회의 협조를 통해서 구입해 볼 수 있는지 검토해 보기로 했다. 9월 26일에 가을 피크닉과 12월 5일에 연말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확정했으며 미네소타 지부도 단독방을 만들어서 소통을 보다 빠르고 쉽게 할수있도록 해보기로 했다.

이사회 이후의 토론 시간에는 아직도 차기회장단이 결정이 되지않아서 우려를 하시는 선배님들의 의견도 있었는데 미주동창회의 지부 담당 고문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는 다른 지부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니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다. 구체적인 방법은 생각나지 않았지만 보다 재미있고 함께하고

싶은 동문회가 되어서 젊은 동문들의 참여가 늘어난다면 이러한 문제들도 서서히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다음번 지부장 미팅에서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오는 9월 26일 미네소타 수목원에서 열릴 가을 피크닉에서 다시 만나기로 인사를 나누면서 이사회를 마무리하였다.

글=문성인(공대 88) 지부 회장

“하하호호!” 장학생도 함께한 웃음 가득한 피크닉

워싱턴주 지부

워싱턴주 지부는 지난 8월 8일 토요일 벨뷰(Bellevue)에 있는 뉴캐슬 비치 파크(Newcastle Beach Park)에서 동문과 가족, 장학생 등 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즐거운 여름 피크닉 잔치를 열었다.

잔치마당은 오전 10시 30분부터 행사 준비위원들의 설레는 발걸음으로 시작됐다. 해마다 기다려오던 해물과 전과 김치부침개를 부치는 소리와 맛 덕분에 반가운 만남의 분위기가 한층 더 무르익었다.

낮 12시에는 동문들이 각자 정성껏 준비해 온 음식으로 풍성한 식탁을 차리고 함께 점심을 즐겼다. 참석자들은 음식을 나누며 학창 시절의 추억과 최근의 근황을 이야기하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이어갔다.

식사를 마친 오후 1시 30분에는 기념 촬영이 진행됐다. 사진 촬영을 맡은 이정관 회장(농대 83)의 장남 이종환 군은 참석자들에게 다양한 포즈를 주문하며 재치 있게 웃음을 유도해 이날의 즐거운 순간을 사진에 담았다.

이어 이정관 동문회장의 환영사로 본행사가 시작됐다. 정은구 장학회장(치대 92)은 장학회의 설립 취지와 운영 현황을 소개하고 동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다.

올해 서울대 동문회 장학생으로는 모두 9명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7명은 지역 신문을 통해 모집 공고를 내고 지원서를 접수한 뒤 장학위원들의 개별 심사와 전체 토의를 거쳐 선발했다. 나머지 2명은 특별 장학생으로, 워싱턴 대학교(UW)에서 한국학 관련 전공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추천받아 선정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6명의 장학생들은 동문들의 학업 후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학업을 마친 뒤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사회와 세상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새로 시애틀 지역에 정착한 동문들과 오랜만에 모



워싱턴주 동문들이 지난 8월 8일 벨뷰에 있는 뉴캐슬 비치 파크에서 여름 피크닉을 즐기면서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피크닉에는 동문과 가족, 장학생 등 60여 명이 참가했다.

임을 찾은 동문들을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유희두 동문(사대 72)은 Argonne National Laboratory에서 근무한 뒤 최근 은퇴해 시애틀 지역으로 이주한 지 1년이 됐으며, 이날 부인과 함께 처음으로 동문회 행사에 참석했다. 유희두 동문은 시애틀에 정착한 지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장학회에 크게 기여했으며, 이미 장학위원으로 초청돼 올해 장학생 선정 과정에도 참여했다.

한상규 동문(치대 76)은 위스콘신에서 치과의사로 활동하다 은퇴한 뒤 따님이 거주하는 시애틀 지역으로 이사했다. 이와 함께 오랜만에 동문회 모임을 찾은 송진화(음대 79), 김용성(인문대 88), 정수진(인문대 88) 동문도 소개돼 참석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또 이명자 동문(간호대 74)이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과 장학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참석자들이 함께한 게임이었다. 동문회는 피크닉 일주일 전 준비모임을 통해 OX 퀴즈, 신발 던지기, 빙고 등 세 가지 게임을 준비했다.

첫 번째 OX 퀴즈는 동문과 가족들의 상식을 겨루는 게임으로 진행됐다. 이정관 회장이 직접 문제를 출제하고, 보안을 위해 부인인 최현주 동문(공대 89)과 며느리에게까지 문제 내용을 비



올해 동문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9명 중 6명이 피크닉에 참석해 감사 인사를 했다.

밀로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기울였다. 치열한 경쟁을 거쳐 김인배 동문(수의대 59), 안병주 동문(공대 08), 주영순(김용성 동문 부인) 씨가 최종 3인으로 남아 상품을 받았다.

두 번째 게임은 신발 던지기였다. 참가자들은 약 5m 앞에 그려진 원 안으로 한쪽 신발을 던져 넣거나 원에 걸치게 하면 상품을 받는 방식으로 경쟁했다. 하지만 신발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굴러가면서 성공자가 많지 않자 원의 크기를 두 차례 확대했다. 결국 모든 참가자가 상품을 받을 수 있도록 게임을 조정해 웃음을 자아냈다. 상품은 김재훈 동문(공대 72)의 부인 김명호 여사가 리본으로 정성스럽게 장식해 참가자들에게 전달했다.

마지막 게임은 동문회의 전통적인 프로그램인 빙고게임이었다. 이승윤

동문(공대 90)은 참석자들의 이름과 연예인 이름을 활용해 출석부 형식의 빙고판을 준비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리면 손을 드는 방식으로 진행돼 참석자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첫 빙고 당첨자를 시작으로 참가자들이 차례로 빙고를 완성했으며,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참석자들까지 빙고를 완성하면서 게임을 마무리했다.

풍성한 음식과 반가운 만남, 장학생들과의 뜻깊은 교류, 그리고 웃음 가득한 게임으로 진행된 이번 하계 피크닉은 동문 간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는 자리가 됐다. 참석자들은 오는 12월 열릴 송년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행사를 마쳤다.

글=박한규(공대 91)
사진=이종환(이정관·최현주 동문의 장남)

남가주 이어 워싱턴주 지부도 어린이 로봇 캠프 성료

직접 코딩해 로봇 움직여 학생·학부모 뜨거운 호응

지난 7월 남가주 지부에 이어 8월 워싱턴주 지부도 4~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로봇 여름 캠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워싱턴주 지부는 지난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시애틀 지부, 시애틀 한국교육원과 공동 주최로 시애틀 한국교육원에서 ‘햄스터 오디세이(the Hamster Odyssey)’ 여름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학생들이 직접 로봇 작동 프로그램을 코딩하고 로봇을 제어해 축구 게임



워싱턴주 김재훈 동문이 시애틀에서 열린 어린이 로봇 캠프에서 참가 학생, 봉사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을 펼치는 등 로봇 공학의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참가 학생들은 “프로그램이 정말 재미있었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조그마한 로봇들이 우리가 코

딩한 대로 움직이며 골을 넣었을 때 기뻐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며 만족감을 나타냈고, 학부모들은 “대부분의 여름 캠프가 350달러에서 700달러 수준인데 참가비가 250달러로 저렴하고 점

심까지 제공해줬다”며 주최 측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남가주와 워싱턴주 지부의 이번 로봇 캠프는 자신의 햄스터 로봇을 제공하고 행사 개최 비용의 일부까지 기부한 서울대 미주동창회 한홍택 장학위원장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햄스터 로봇은 블록 코딩부터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해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코딩과 로봇 제어를 배울 수 있도록 개발된 소형 교육용 로봇이다.

남가주와 워싱턴주 지부에서 시작한 이번 로봇 캠프가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으면서 한홍택 박사는 미주동창회의 다른 지부들이 원할 경우 햄스터 로봇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미주동창회 역시 KSEA와 협력해 전국 단위 행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



지난 8월 12일 뉴저지 알파인 파빌리온에서 열린 뉴욕 총동창회와 골든클럽의 합동 피크닉에서 동문들이 특별 초청된 한국무용 전문가 여은숙씨의 지도 아래 우리 춤사위를 배우고 있다.

뉴욕 총동창회 · 골든클럽 합동 피크닉 성료

뉴욕 지부

지난 8월 12일, 뉴저지 알파인 파빌리온(Alpine Pavilion)의 푸른 자연 속에서 서울대학교 뉴욕지구 총동창회와 골든클럽의 2026년 합동 피크닉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화창하고 선선한 날씨 속에 진행된 이번 피크닉에는 90여 명의 동문 및 가족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특히 오랜 세월 동창회를 지켜온 원로 동문들과 패기 넘치는 신입 동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선후배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고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참석자들은 반가운 인사와 함께 등 록을 마친 후, 준비된 정성 어린 도시락을 나누며 정겨운 담소를 나눴다. 식사 후 이어진 2부 여흥 시간은 김정필 골든클럽 회장의 위트 있고 활기찬 진행으로 포문을 열었다.

테이블별 손에 땀을 쥐게 한 ‘종이컵 피라미드 쌓기 대항전’에 이어, ‘6070 추억의 가요·시사 상식 및 모



(왼쪽부터) 멋진 손짓과 발걸음으로 어깨춤을 추고 있는 동문들. 종이컵 피라미드 쌓기 대항전은 아슬아슬한 긴장감으로 동문들의 탄식과 환호를 자아냈다.

흥미진진한 테이블 대항 레크리에이션 민요 장단에 어깨춤 덩실, 힐링의 시간

교 관련 퀴즈 대회’가 펼쳐졌는데 동문들은 숨겨둔 순발력과 지식을 발휘하며 열띤 경합을 벌였고, 현장은 아슬아슬한 긴장감과 유쾌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특별 초청된 한국무용 전문가 여은숙 선생님의

지도 아래 진행된 무용 시간이었다. 동문들은 신명 나는 민요에 맞춰 어깨춤을 추고 흥겨운 라인댄스를 즐기며 자연스레 하나가 되었다. 처음 접하는 춤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우아하고 멋진 손짓과 발걸음을 선보여 큰 분수 같은 환호를 받았다.

행사의 마지막에는 참석자 전원이 서로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만들며 BTS의 ‘아리랑’ 음악에 맞추어 강강술래와 같은 대동제 무용을 펼쳤다. 세대와 시공간을 초월해 하나로 어우러진 이 시간은 잊지 못할 낭만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피크닉을 즐긴 동문들은 아쉬운 이별의 인사를 나누며, 한층 더 깊어진 동문애를 가슴에 품고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글·사진=김정필(공대 71)
뉴욕 골든클럽 회장 제공

장학위원회 출범 ... 동문 소통 위한 카톡방도 개설기로

커네티컷 지부

커네티컷 동문회는 지난 8월 15일, 하트포드 인근의 한 바베큐 레스토랑에서 정기 모임을 가졌다. 화창하고 맑은 날씨 가운데 식사를 함께하며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모임은 하트포드인근에서 개최되어 예일대 인근 지역 동문들의 참여가 많지 않아 아쉬운 면도 있었지만, 처음 참석한 동문들도 함께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이날 모임에서는 지부의 활성화와 동문 간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도 논의되었다. 우선 지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지부 소식과 각종 공지사항, 동문들의 경조사 등을 신속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유은주 선교사 (고 유시영 동문 가족)의 후원으로 지부 차원의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하고, 새롭게 장학위원회(장학위원 김서유, 박용해, 임현숙동문)를 출범시켰다. 아울



커네티컷 지부 동문들이 지난 8월 15일 모임을 갖고 지부 활성화와 동문 소통을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러 동문회 운영의 투명성과 편의를 위해 동문회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했음을 공지하였다. 이와 함께 예일대 음대 동문들을 초청하여 음악회도 개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모임에서는 동문들의 다양한 근황과 삶의 이야기도 나누었다. 김창수, 안선숙 동문 부부는 커네티컷 한인 역사를 담은 회고록의 편집과 출판 준비를 돕고 있고 유은주 선교사는 뉴헤이븐 한

글학교의 재개교를 돕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윤세왕 동문은 반도체 분야에서 시작해 바이오시밀러 분야에 이르기까지 걸어온 폭넓은 경험과 인생 이야기를 나누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한 최상은 동문 가정의 자녀 결혼 소식도 함께 나누며 진심으로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커네티컷 지부는 비교적 최근에 설립되어 아직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

있다. 앞으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동문들에게 지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더 많은 동문들이 유익한 만남과 교류의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박성훈 회장은 동문들 간의 소중한 인연이 계속 이어지고, 좋은 만남과 교류의 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였다.

글=임현숙(공대 83)



마음 모아 달려온 4년, 화목하고 즐거운 우리 동창회

미시간 지부

미시간 지부의 총회 및 피크닉이 8월 1일(토) 아일랜드 레이크 공원(Island Lake Park)에서 열렸다. 총 47명의 동문과 가족이 모여 미시간의 아름다운 여름을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총회에서는 다 함께 우렁차게 교가를 제창하였고, 총무 조호정(음대 81) 동문이 이사진과 임원진을 소개했다. 이어 제1·2대 회장인 이광진(공대 81) 동문이 지난 4년간의 동창회 활동 내역을 보고하고 제3대 회장 선거를 진행했다. 단독 후보로 추천된 박기완(농대 86) 동문은 본인을 제외한 참석 동문 전원의 만장일치로 제3대 회장에 선출되었다.

제1·2대 회장으로 봉사한 이광진 동문은 이임 인사에서 “지난 4년간 동문 여러분의 헌신적인 지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우리 동창회가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며 동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그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우리 동창회가 앞으로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새로 취임하는 회장님과 임원진께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며, 앞으로는 이사로서 곁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새로 회장을 맡게 된 박기완 동문은 취임 인사에서 “지금까지 동문회가 이광진 회장님의 열정과 헌신으로 잘 운영되어 왔음에도, 저를 비롯한 후배 임원들에게 중책을 맡겨 주신 대선배님들의 깊은 뜻을 잘 새겨 동문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위아래의 의견들을 귀담아듣고 하나로 모아 많은 동문들이 기쁘게 함께할 수 있는 동문회를 만들어 가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모임에는 반가운 새 얼굴들도 함께했는데 이병현(화학과 72), 이필희



미시간 지부 동문들이 지난 8월 1일 아일랜드 레이크 공원에서 총회와 피크닉을 열고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미시간 동창회 설립 4주년을 기념해 진행한 케이크 커팅식. 박기완 신임 회장과 김미란 동문 부부. 쟁가 게임에 몰입한 이수형 동문.

4년 헌신 이광진 회장, 박기완 새 회장에게 바통 마카로나춤으로 다 함께 몸 풀고 게임에 싱어롱

(의류학과 74) 동문 부부가 동창회 모임에 처음 참가했으며 U of Michigan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장정택(전기과 14), 이수형(전기과 17), 채연우(산업공학 20) 학생 동문 3명도 참석했다.

맛있는 식사 후에는 이사진을 모시고 미시간 서울대학교 동창회 설립 4주년 기념 케이크 커팅식을 진행했다.

4주년 케이크와 수박을 디저트로 즐긴 후, 신미나(사범대 91) 동문의 리드로 케이팝 대문 헌터스의 히트곡 ‘Golden’에 맞춰 다 함께 마카레나 춤을 추었다.

마카레나 춤으로 몸을 푼 동문들은 이어 쟁가 게임과 제기차기로 치열한 승부를 펼쳤다.

이어 이광진(공대 81) 동문의 기타 반주에 맞춰 싱어롱을 진행하였다. 동요부터 60~80년대 인기 가요, 그리고 2000년대 히트곡인 자두의 ‘김밥’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지며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참가한 동문들은 각자의 애창곡을 열창하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아침이슬’을 끝으로 노래로 하나 되었던 화합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동문들은 다음 행사를 기약하며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글=이광진(공대 81) 지부 회장

동문·가족 90여 명 한자리... 웃음꽃 피운 여름 야유회

북가주 지부

실리콘밸리의 푸른 여름 햇살 아래, 서울대학교 북가주 동문들의 정겨운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8월 22일(토) 쿠파티노 지역 한 공원에서 개최된 이번 북가주 동문회 여름 야유회에는 가장 막내 기수인 16학년 동문부터 까마득한 선배인 55학년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연령대의 동문 및 가족 약 90명이 한자리에 모여 선후배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맛있는 도시락 식사로 시작된 행사는 한 가족처럼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온기를 더해갔다.

이어진 프로그램에서는 음악 제목 맞추기 퀴즈와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게임이 진행되었고, 참가자들은 추억의 노래부터 최신 음악까지 적극적으로 맞추며 한껏 고조된 분위기를 즐겼다.

게임 중간중간 유쾌한 자기소개 시간이 곁들여져 서로의 일상과 커리어



지난 8월 22일 쿠파티노의 공원에서 열린 야유회에 참가한 북가주 동문들이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를 공유하고 마음의 거리를 한층 더 줄이는 계기가 되었다.

행사 막바지에는 지난 2년간 동문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수고해 준 김민규 부회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공로패를 전달하는 뜻깊은 순서도 마

련되었다.

세대 차이가 무색할 만큼 대학원생부터 여유로운 은퇴생활을 즐기는 대선배들까지 한데 어우러진 이번 야유회는 단순한 모임을 넘어 선후배 간의 깊은 신뢰와 삶의 지혜를 교류하

는 장이었다.

세대를 가로지르는 따뜻한 화합을 확인한 이번 행사는 북가주 동문회의 끈끈한 유대감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며 성황리에 마무리를 지었다.

글=윤정아(소비자학과 95)

광복 앞당긴 존슨 … “이제라도 전국 훈장 추서해야”

<전 서울 주재 미국 부영사>

김태환(문리대 60)



해방 당시 (1945년 8월 15일) 어렸거나 태어나지도 않으신 분들은 35년간 식민 통치를 해 온 일제 총독은 미군 진주와 아울러 당연히 물러나서 일본으로 떠나갔을 것으로 생각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왕이 항복 의사를 방송으로 발표해서, 당시 조선 사람들은 그 즉시로 해방이 된 줄로 기뻐했으나, 미군이 제물포(현 인천)에 진주하던 당일(1945년 9월 8일) 환영 인파의 질서유지를 위해 일제 경찰관들이 쏜 총에 두 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부상당했다.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게 된 것은 미군이 조선에 진주할 때까지 일본 총독부가 치안을 관장해 달라고 오키나와에서 남한 진주를 준비하던 미 제24군단이 서울에 있는 총독부에 전문으로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일본 경찰은 서울에 진주한 미군(9월 9일)의 호위까지 맡았다.

사실은 미군이 왔지만 미군은 일제 총독 이하 모든 일제 관료들을 그대로 두고 해방 전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통해 미군 관할 지역인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을 통치하려 하여 미 극동군 총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은 대조선인 포고령 1호를 통해(9월 9일 발표) 일제 총독부 관료를 위시하여, 공공사업 분야 등, 필수 분야 종사자들도 모두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을 명하였다. (동 포고령 제2조)

이와 같은 포고령 발표를 알고 난 당시 조선인들은 그렇게 목마르게 기다리던 해방이 왔다고 알았지만, 일제 총독을 그대로 둔 채 군정을 시행하려는 것은 총독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보아서 미국에 대해 크게 실망하였고, 커다란 분노를 표출하였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미국이 일제 총독을 그대로 둔 채 그를 통해 조선을 다스리려 했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미국은 1945년 7월 26일에 발표한 포츠담 선언에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면서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일본은 천황제 유지를 조건으로 항복할 의사를 중립국을 통해 연합국 측에 흘리고 있었다.> 무조건 항복에는 “천황제 폐기”까지도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일본은 미국 폭격기(B-29)들이 일본의 주요 도시를 차례대로 용단 폭격하는데도 속수무책이었지만, 겉으로 최후 항쟁을 고수하였다.

미국의 (태평양 전쟁) 종전 이후 일본 통치 방식을 연구하던 국무부, 육군부, 해군부 3부 합동 조정 위원회(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 <SWNCC: 스윙크>)는 일왕을 그대로 두어 일왕제를 현상대로 유지시키면서 그(일왕)를 통해 일본 정부 기관을 움직여 군정을 실시하려고 결정했다.

미국이 이렇게 결정하게 된 연유는 일왕제를 폐기하는 경우에 일본인들의 무한정적 반대(저항)에 부닥칠 것이고, 그를 통해 이미 있는 일본 정

국이 오히려 일제 식민 통치를 연장시킨다는 인식을 시키도록 만드는 어리석음을 연출하였다.

여기까지는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해방되고 미군



해방 후 미군 진주하고도 제자리지킨 일제 총독

존슨, 워싱턴에 ‘총독부 잔존의 위험성’ 문제 제기

트루먼 ‘조선 해방’ 성명서 총독부 잔류 조치 설명

부 기관의 기능을 활용한다면 대일본 군정의 민사 관련 사항(Civil Affairs)을 통제해 나가는 데 인력 수요를 최소화한다는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은 스윙크(SWNCC)가 작성한 최종안(SWNCC 150/4)을 승인하였고, (1945.9.6) 스윙크는 바로 이를 합참(JCS: Joint Chiefs of Staff)을 통해 동경의 맥아더 사령부에 통보하였다. (주 1)

그리하여, 일본 점령군 최고 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은 태평양 전쟁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일왕을 본국 훈령에 따라 전범으로 체포하지 않았고, 그를 통해서 일본 점령지 통치를 시도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왕 불체포는 그의 단독 결정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결정이었다.>

이처럼,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여 우수한 지능을 가졌다고 알려진 그는 조선의 현지 사정을 전혀 모르면서 일본에서 시행하는 방식대로 (mutatis mutandis) 이를 그대로 조선 점령지(남한)에도 적용하여 포고문 제1호를 발표하였다. (주 2) 이로써, 그는 일제의 식민 통치에 신음하다가 해방의 기쁨을 누리려는 조선인들에게 해방의 기쁨은 잠시에 불과하였고, 미

이 진주했지만 그토록 보기 싫어했던 일제 총독이 그대로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셔서, 그 부분의 연유를 필자가 위에서 밝혔습니다. 필자는 이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일제 총독을 어떻게 축출하게 되었는지를 살피는 가운데, 포고령 제1호가 발표되기도 전에, <태평양 전쟁 발발 이전에> 서울 주재 미국 부영사로 근무한 바 있어서, 조선인들이 일제 총독 등 일제 관료들을 얼마나 혐오하는지를 잘 알고 있던 존슨(U. Alexis Johnson) 영사는 (얼마 후에 일본 주재 군정청 민사부에 파견 근무함) 마닐라 주재 미국 영사관 직속 상사인 스타인토프(Steintorf) 총영사에게 “미국이 조선 통치를 일본에서 행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mutatis mutandis) 행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undesirable)” 지적하였다.

존슨 영사는 일왕의 항복 후 당시 오키나와에 있는 미 제24군단장으로 조선에 나가서 점령군 사령관이 될 하지 중장과 마닐라 현지에서 만나서 대화를 통해 그가 조선 통치에 관한 아무런 지침을 받은 바 없으며, 일본에 대한 통치 지침은 스윙크(SWNCC)-150/4에 기초할 것임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 방식을 조선에도

적용한다면 조선인들을 실망시켜서 미국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만들 것임을 확신하여 정부 정책에 거슬리는 건의를 하여 혹은 있을지도 모르는 일신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가 근무하며 가깝게 지낸 조선인들을 실망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직속 상관에게 건의한 것이었다.

저간의 사정을 긍정적으로 판단한 직속 상사인 스타인토프 총영사는 이 사실을 국무장관에게 전달하였다. (1945. 8. 26) (주 3)

또한, 마침 포고령 1호 발표 이후 조선의 여론이 극도로 나빠진 것을 확인한 스윙크(SWNCC)는 일본 총독부 소속의 총독을 위시하여, 총독부 부사장, 도지사, 도경찰국장을 즉시 퇴출(Remove from office immediately)할 것을 맥아더 사령관에게 지시하였다. (1945. 9. 14) (주 4)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총독 등을 퇴출하도록 지시한 문서(SWNCC-176/4)에는 총독부 고위직 간부 제거에 있어서, 그 이외의 일본인 관료 제거뿐만 아니라, 친일 조선인 관료들도(collaborationist Korean administrators) 가능한 한 신속히(as rapidly as possible) 제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조선인의 원성의 초점인 일제 총독과 총독부 고위관료를 그대로 두고 미군정을 실시하겠다는 포고령 제1호 발표로 미국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나빠진 점을 파악한 애치슨 국무장관 대행(당시 번스 장관은 런던에서 열린 미·영·소 3국 외상회담 참석 중)은 스윙크의 결정 통보를 받음과 동시에 전직 서울 주재 부영사였으며, 당시 마닐라 영사인 존슨의 건의를 마닐라 총영사 스타인토프의 서한을 통해 받은 바 있어서 격양된 조선인의 민심을 가다듬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대통령 명의의 상황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건의하여(1945. 9. 14: 주 5-1) 트루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백악관에서 공표하였다. (1945. 9. 18: 주 5-2)

이 성명문(번역문 아래에 별첨함(주 5))을 찬찬히 뜯어 읽어보면, 그전까지 잔류했던 일제 총독이 해임된 직후에 발표된 점을 감안한다면, 미군정의 잘못된 시책(일제 총독 잔류)을 해명하며 사과하는 성명서임을 알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이 조선인을 대상으로 직접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한·미 간 역사상 초유의 사건(first historic event)이라 하겠다.

필자는 존슨 영사가 일신상의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이를 감수할 각오로 상부에 일제 총독 잔류가 부당함을 건의하는 용기를 보여 주었고, 실제로 그의 건의로 인해 일제 총독과 고위 관리(일인 도지사, 도경찰국장 등)를 즉시 퇴출시키게 한 것으로 그가 우리 건국에 크게 공헌하였음

주석
 주 1: United States Initial Post-Surrender Policy for Japan (SWNCC150/4) SWNCC 150/4 <대통령 승인 최종본> https://www.ndl.go.jp/constitution/shiryo/01/022/022tx.html 주 2: D 776 Proclamation No. 1 by General of the Army Douglas MacArthur (포고령 1호) Yokohama, September 7, 1945)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45v06/d776 주 3: D 774 The Consul General at Manila (Steintorf) to the Secretary of State (August 26, 1945)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45v06/d774 주 4: 777 SWNCC 일본총독등 중요 간부 즉시 제거 추진 SWNCC 176/4 [WASHINGTON,] September 10, 1945.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45v06/d777 주 5: Memorandum by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 to President Truman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45v06/d780 주 5-1: Memorandum by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 to President Truman 애치슨 국무장관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대 조선인 (사과)성명 발표 건의문 주 5-2: 주 5-2 (Draft) Statement Prepared for President Truman 69 (트루먼 대통령 사과 성명 초안) 주 5-3: 이박사가 트루먼 대통령께 보낸 감사 전문 <상기 주 5-2의 말미에 있음>

가든그로브 명예시민이 된 '산악인' 김윤종 동문

“세계는 하나” LA 폭동이후 한국 알리기에 힘써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보나 다름없습니다.”

김윤종(약대 64) 동문이 평생 자랑스럽게 간직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캘리포니아주 가든그로브(Garden Grove)시가 수여한 ‘명예시민증’이다. 가든그로브는 LA에서 남서쪽으로 약 15마일 떨어진 도시로 LA 한인타운에 이어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 중 하나다. 한국에 거주하는 그 미국 도시의 명예시민이 된 사연은 그래서 더욱 특별하다.

그 인연의 출발점은 1992년 LA 폭동이었다. 당시 수많은 한인 업소가 약탈과 방화로 무너졌고,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했다. 한인사회는 그러나 분노와 복수 대신 화해와 공존의 길을 선택했다. 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계 커뮤니티와의 갈등을 극복하고 상호 이해를 넓히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졌다.

그 무렵 LA 한인타운에서 대형 약국을 운영하던 한 지인이 김 동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한인사회와 소수계 사회의 가교 역할을 위해 매년 15~20명의 마이너리티 지도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프로그램(Global Community Service)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 방문 기간 동안 이들을 안내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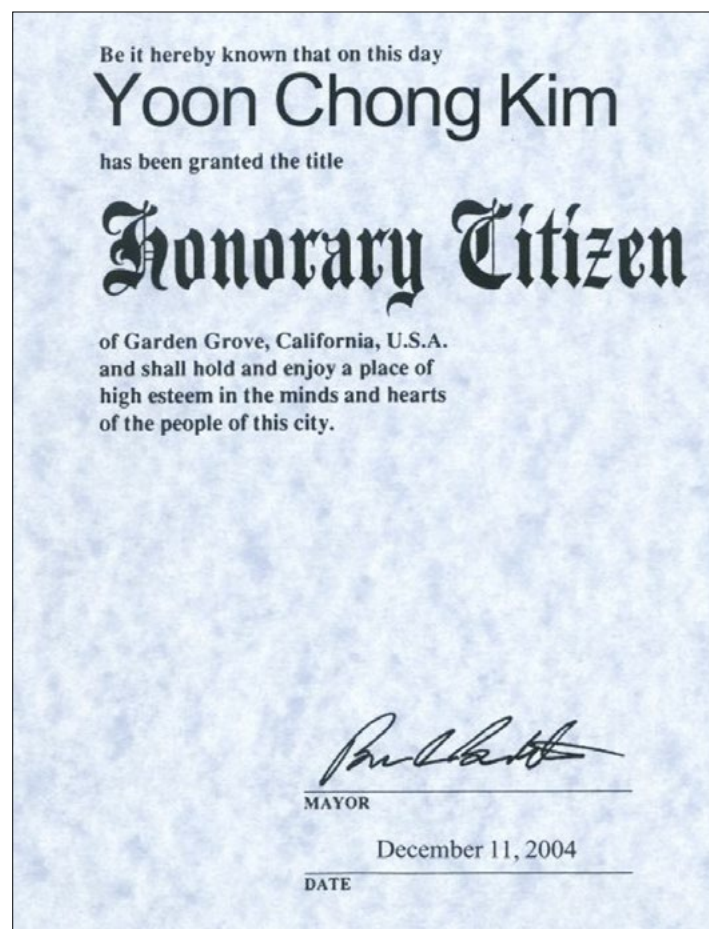
김 동문은 흔쾌히 그 역할을 맡았다. 참가자들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 경제 발전 과정, 그리고 한국인의 삶과 공동체 정신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했다. 산업 현장과 문화유산을 함께 둘러보며 한국 사회가 걸어온 길을 설명했고, 한국인 특유의 정과 공동체 의식을 진솔하게 전달했다.

특히 LA 폭동의 상처를 직접 목격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도전, 그리고 이를 극복하며 이룩한 성취를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이러한 진심 어린 노력은 참가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2004년에는 가든그로브시의 고위 공직자들이 한국을 방문했다. 이때도 김 동문은 한국 문화 알리기 역할을 자처했다. 그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 눈부



김윤종 동문은 2004년 한국을 방문한 가든그로브시 고위 공직자들에게 한국 문화를 헌신적으로 안내해 가든그로브시가 수여한 '명예시민증'을 받았다.



신 경제 성장 과정은 물론 한국인의 정서와 공동체 문화를 소개하며 방문단과 격의 없는 교류를 이어갔다. 때로는 한국식 폭탄주인 ‘소맥’을 만드는 법까지 알려주며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다.

방문단은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환대와 김 동문의 헌신적인 안내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 사실이 가든그로브 시청부에 전달되자 시의회는 만장일치로 김 동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작은 도움이었을 뿐입니다. 다만 미국 사회에 한국을 알리고 한인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가장 기쁩니다.”

김 동문에게 명예시민증은 단순한 상장이 아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문화와 인종이 이해와 신뢰를 통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

는 상징이다. 사업가로서의 삶 또한 주목할 만하다. 약대를 졸업했지만 약사의 길 대신 의약품 수출입 분야에 뛰어들어 자신이 창업한 마성상사를 중견기업으로 성장시켰다. 특히 직원 복지에 대한 관심이 남달라 업계에서는 ‘복지 끝판왕’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기업의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신념이다.

그의 이름 앞에는 ‘산악인’이라는 또 하나의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한국산악회 부회장으로 활동한 바 있는 그는 혹독하기로 유명한 한국산악회의 동계 훈련 과정을 모두 수료한 베테랑 산악인이다.

팔순이 되던 해에는 기념 산행으로 북한산 인수봉을 등정해 주변을 놀라게 했다. 최근에는 인수봉 1,000회 등정을 목표로 하는 ‘천봉회’를 조직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해외 원정 산행도 수없이 다녔다. 세계 곳곳의 명산을 오르며 다양한 문

화와 사람들을 만난 그는 그 과정에서 인생의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

“산에 오르면 피부색도, 국적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같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가든그로브 명예시민이라는 영예 역시 이러한 삶의 철학이 있었기에 가능했는지 모른다. 국적과 인종, 언어의 차이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힘. 김 동문이 평생 실천해 온 가장 소중한 가치가 바로 그것이다.

임낙균 전 남가주 총동창회장은 김 동문의 대학 동기이자 오랜 벗이다. 두 사람의 우정은 반세기가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김 동문이 미국을 방문할 때면 임 전 회장이 자신이 소유한 LA 한인타운의 콘도를 내어줄 정도로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글= 최진석(법대 64)

➔ 로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건국 훈장을 추서하고 그분의 후손에게 전해야 될 것으로 사료합니다.

필자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필자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 글을 읽으시는 각계각처에 봉직하시는 애국 시민들께서, 첫째, 트루먼 대통령의 사과 성명문이 널리 알려지게 해 주시고, 존슨 영사(후에 국무부 정치 담당 차관보<국무부 내 제3인자>도 지내시고, 한국 전 당시 포로 교환 방식을 “자유 송환”으로 하기 위해 거제도 포로 수용소까지 몸소 방문하셔서 현지 상황을 살펴서 자유 송환 방침을 확정되게 하셨습니다(당시 극동 담당 부차관보)의 건국 훈장 추서를 이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루먼 미국 대통령의 조선 해방 관련 성명 (전문)

오래도록 조선의 수도였던 서울에 주둔한 일본군이 (미국군에게) 항복한 것은 자유를 사랑하는 영웅적인 조선 인민에게 해방의 낭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에 의한 장기간에 걸친 잔인한 식민 지배하에서도 조선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간직해 오며, 여러분들의 민족적 자유를 찾는 데 부단히 헌신해 왔습니다.

이제 일제의 압제는 끝났습니다. 일제 군국주의자들은 제거되고 있습니다. 지금 임시적으로 잔류하는

일본인 관리들은 그들의 기술적(행정적인) 자격 때문에 조선인 여러분들과 점령군(미군)의 머슴으로 활용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 해방의 순간에 우리(미국인)들은 우리를 앞에 놓인 어려운 일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선이 자유롭고 독립되어야 한다는 데 모두 동의하는 미국, 중국, 영국, 그리고 소련의 협조로 위대한 국가(조선)를 건립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선 인민 여러분들이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스

스로 떠맡고 조선인 여러분들의 경제적·정치적 생활에 드리워졌던 일제의 잔재를 제거하는 데는 필연적으로 시간과 인내가 따른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목표는 눈앞에 보이지만, 이 목표를 신속히 달성하려면 조선 인민 여러분들과 연합국들과의 공동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오랜 조선의 깃발인 태극기가 “조용한 아침의 나라(조선)”에서 다시 나부끼므로 미국인들도 조선의 해방을 함께 기뻐해 마지않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루먼
1945년 9월 18일

이경아 동문, 보스턴 그룹전 성료

뉴잉글랜드 동창회 축하 화분
동문들도 잇따라 방문해 격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출신 이경아 동문(84 입학)이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6일까지 보스턴 Piano Craft Gallery에서 열린 그룹전 'Rui: Flow'에 참여해 작품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는 보스턴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예술가 단체인 Nomads Art Collective(NAC)가 기획한 그룹전으로, 아시아계 미국인 작가들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시각예술가들이 함께 참여했다.

회화, 조각, 도예, 섬유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통해 정체성, 이주, 문화적 교류와 인간적 연결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전시됐다. 이경아 동문은 이번 전시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색

채와 감성으로 표현한 회화 작품들을 출품해 관람객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경아 동문은 1989년 뉴욕대학교(NYU)에서 Master of Fine Art를 마친 후, 뉴욕과 보스턴, 파리와 독일, 한국에서 작가와 아트 인스트럭터로 활동해 오고 있다.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는 이경아 동문의 전시를 축하하기 위해 축하 난 화분을 전달하며 성공적인 전시를 기원했다.

또한 송미자, 정태영, 김병국, 이영인 동문 등 많은 동문들이 전시장을 찾아 작품을 감상하고 축하와 격려를 전하며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지난 7월 31일 열린 오프닝 리셉션에도 많은 관람객이 참석해 전시를 축하했으며, 전시는 지역 사회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진행됐다. Nomads Art Collective는 뉴잉글랜드 지역의 신진 예술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이영인 뉴잉글랜드 동창회장(왼쪽)이 이경아 동문의 전시장을 찾아 전시를 축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권의 예술가들이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예술 단체이다.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의 다양한 정체성과 문화적 경험을 시각예술을 통해 조명하며, 지역사회와의

문화적 소통과 예술 교류 확대에 힘쓰고 있다. 이번 그룹전에는 이경아 동문을 비롯해 모두 15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글·사진=정태영(문리대 71) 편집위원

김량국 동문이 전하는 창업네트워크 소식

로봇 플랫폼 기업 컷션 이민석(공대 89) 대표

하나의 앱으로 다양한 로봇 서비스 연결

서울대 미주동문회 창업네트워크(기업넷)의 8월 정기 모임이 개최됐다. 이번 모임에서는 이민석 동문이 창업한 로봇 플랫폼 기업 컷션(Cutshion)의 기술과 사업 현황이 소개됐다.

공대 89학번인 이 동문은 25년 이상 IT와 로봇 분야에서 활동하고 세 차례의 창업을 경험했다. 그는 다양한 산업에 로봇이 도입되고 있지만, 로봇 제조사와 기종마다 개발 환경이 달라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문제를 설명했다.

컷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봇 앱 플랫폼인 '피오노이드(PIONOID)'를 개발하고 있다. 피오노이드는 하나의 앱을 개발해 여러 종류의 로봇 하드웨어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웹 개발 프레임워크와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가상 시뮬레이션, 통합 API를 제공하는 'Factory'와 앱 배포, 라이선스 관리, 원격 업데이트를 담당하는 'Store'로 구성된다.

이 플랫폼의 목표는 로봇 개발자들이 하드웨어별로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로봇에 적용할 수 있는 앱과 서비스를 보다 쉽게 만들도록



로봇 앱 플랫폼인 피오노이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민석 컷션 대표

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개발자, 로봇 제조사, 서비스 사업자를 연결하는 로봇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컷션은 플랫폼 개발과 함께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로봇 앱도 공급하고 있다. 외식 분야에서는 '곰쿡(gomcook)'을 중심으로 로봇 카페와 바리스타 로봇을 개발했으며, 메가커피를 비롯한 실제 매장에 로봇을 공급하고 있다. 로봇이 단순히 정해진 동작을 반복

하는 것을 넘어 기존 주방 및 카페 장비와 함께 작동하도록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제조 현장에서도 다양한 적용 사례를 만들고 있다. 인쇄 공장에는 완성된 제품을 적재하는 팔레타이징 로봇을 공급했으며, 조선소에서는 작업 인력 확보가 어려운 용접 공정을 자동화하는 로봇을 개발했다. 컷션은 산업별 전문 기업들과 협력해 현장에 맞는 로봇 앱을 개발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적

용해 기존에는 자동화하기 어려웠던 작업까지 로봇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AI Factory'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설립된 컷션은 로봇 제조사 JAKA의 한국 총판 계약을 시작으로 로봇 서비스 사업을 확대해 왔다. 2023년에는 로봇 서비스 '곰쿡'으로 로보월드 어워드를 수상했으며, 이후 인쇄와 조선 분야의 산업용 로봇을 공급했다. 최근에는 투자 유치와 정부 기술개발 사업 선정을 바탕으로 사업 기반을 넓히고 있으며, 미국 법인 설립과 CES, VivaTech 등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 글로벌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

이 동문은 컷션의 비전을 '생태계를 연결하는 혁신적인 로봇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로봇 한대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로봇과 앱이 연결되는 공통 기반을 구축해 로봇 서비스의 개발과 확산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기업넷은 이처럼 새로운 기술과 시장에 도전하는 동문 기업들이 경험과 사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교류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창업과 투자에 관심 있는 동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문의: rkim@oakbioinformatics.com



원고모집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외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contact@snuuaa.org

박상호 동문의 '가려진 책을 찾아서'

황인찬은 우리가 기다려온 기형도일까?

나는 1961년생 80학번이다. 가파른 고등학교 3학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이 일어나, 예비고사와 본고사가 연기될 것이라는 소문에 환호성을 지르던 파란만장한 세대다. 대학교에 입학한 1980년에는 몇 달 간의 짧은 신입생 시절 후, 기나긴 계엄령으로 한 학기 대부분을 휴교상태로 보낸 학년이다. 그래서인지, 유명한 58년 개띠를 시작으로 나의 위 아래 몇 살 터울에는 모진 바람과 사고로 얼룩진 타고난 천재들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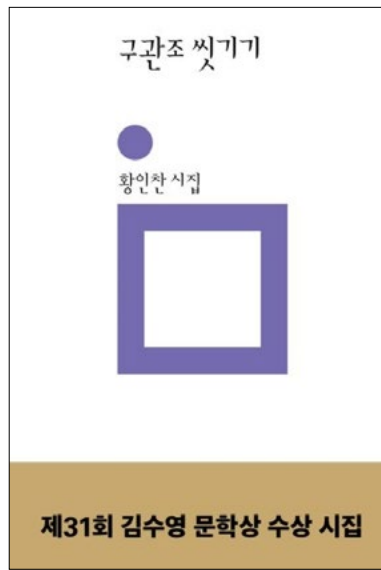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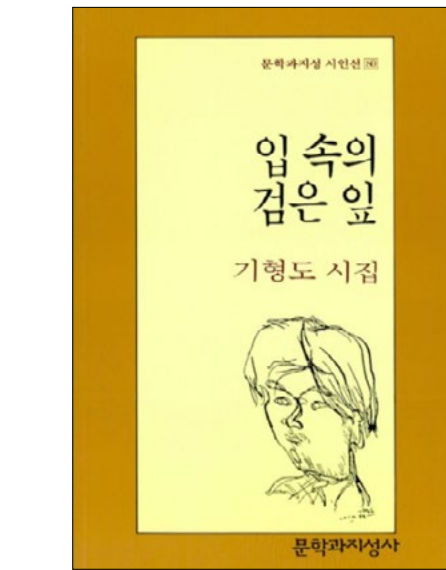
나보다 한 살 아래 그리고 한 살 위로 대한민국 예술계에 커다란 두 별이 있었다. 우선은 한 살 아래 1962년에 태어나 한국 가요계에 전설이 되어 사라진 사람이 있다. 그는 단 한 장의 앨범 〈사랑하기 때문에〉를 1987년에 발표하고 그 해 11월 01일 새벽, 한남동 강변북로 부근에서 교통사고로 숨을 거두었다. 한양대학교 작곡가 출신의 그는 〈조용필의 위대한 탄생〉, 김현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신촌 블루스〉에서 연주자로 활동하였다. 2007년에 발표된 한국대중음악 100대 명반에서 유재하의 음반은 2위에 이름을 올린다. 1위는 물어볼 필요도 없이 '들국화'다. 3위는 '김민기', 4위는 조동익과 이병우의 '어떤 날', 5위는 '산울림'이다.

문학계에서는 나보다 한 해 일찍 태어나 요절한 천재시인이 있다. 그는 1960년 생의 기형도이다. 1990년대 이후 시인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의 서재에는 그의 유일한 시집 〈입 속의 검은 잎〉이 꽂혀 있었다. 198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부분에서 당선작으로 선정된 〈안개〉는 신춘문예용 모범답안으로 불려지기도 했다. 게다가 시인은 중앙일보 기자시절 만 28세의 나이로, 동성연예자들이 들끓는 종로의 심야 파고다극장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사인은 뇌졸중이었다. 그의 유고 시집은 그가 죽은 그 해 1989년 5월에 출간되었다.

시인은 태어난다. 사실 이 말은 소설가와 비교하여 만들어진 말이라고 보아야 한다. 소설은 엉덩이로 쓴다는 말이 있듯이, 소설가는 오랜 시간과 인내, 체력과 지구력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미련한 꿈을 수년 동안 동굴에 가두어 두면 웅녀가 되어 기어나오던 지, 소설을 한 편 들고 나올 수 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꿈은 절대 시인이 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좋은 시인이다.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작가를 가진 나라이다. 하지만 30년 후에 살아남는 작가는 손가락으로 밖에 꼽지 못할 것이다. 기형도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그것을 바라기에 나의 글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시인을 그로부터 시작한다.

기형도

그는 1960년, 서해교전이 일어났던 연평도에서 3남 4녀 중 막내로 태어



고 기형도 시인의 '입 속의 검은 잎'과 황인찬 시인의 '구관조 씻기기' 시집 표지.

났다. 서해안 간척 사업에 실패한 부친을 따라, 5살 무렵 철거민들과 수재민들의 정착촌 지역인 경기도 시흥군 소하리(지금의 광명시 소하동)로 이주한다. 초등학교 3학년 시절 부친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그의 누이들은 안개가 자욱한 소하리 안양천 독방을 따라 공장에 다닌다. 중학교 3학년 시절 여고 2학년이던 셋째 누이의 죽음으로 시에 대한 눈을 뜨게 된다. 1985년 연세대 정외과를 졸업하고 그 해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된다. 1984년부터 중앙일보에 입사

적인 것)에서 시적인 것을 이끌어내, 추함으로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이며, 현실적인 것이 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아니 차라리 시적인 것이란 없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것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데 있다.'

황인찬

시인은 1988년 경기도 안양에서 태어나, 아이돌 그룹과 예능게리온에 환

시린 현실 속 불안과 고독의 내면 그린 28세 나이에 요절한 천재 시인 기형도 그리고 일상의 균열을 응시하는 황인찬

하여 정치부, 문화부, 편집부에서 일하면서 지속적으로 시들을 발표한다. 그의 시 속에 녹아있는 불안과 죽음에 대한 떨림은, 위험한 가족의 기억과 기우뚱거리는 사회로부터 달려왔음이 분명하다.

시는 시로서 서 있어야만 하고, 그에게는 안양천의 안개를 헤치고 공장으로 향하는 가족이 있었다. 그의 가족 중 그가 유일하게 대학을 다녔다. 그는 타고난 초식동물이었다.

그의 시집 해설을 펼쳐보면 그리운 얼굴을 본다. 한국 문학계 비평사에 영원히 살아남을 작고하신 김현 문학평론가의 해설을 볼 수 있다.

‘좋은 시인은 그의 개인적-내적 상처를 반성-분석하여, 그것에 보편적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대부분의 시인들은, 그러나 자기의 감정적 상처를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그것을 억지로 감춤으로써, 끝내, 기형도의 표현을 빌면 "추상이나 힘겨운 감상의 망토"를 벗지 못한다. 그것은 보기에 흉하다.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짓이기 때문이다.’

‘기형도의 리얼리즘의 요체는 현실적인 것(---개인적인 것 --- 역사

호하는 신세대다. 2012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 후, 2년 만에 첫 시집 〈구관조 씻기기〉를 냈으며, 최연소 ‘김수영 문학상’을 거머쥐게 된다. 이후 〈희지의 세계〉, 〈사랑을 위한 되풀이〉, 〈여기까지가 미래입니다〉, 〈이걸 내 마음이라고 하자〉를 펴냈다.

기형도의 부활을 기다리는 나에게, 지금의 시인 중, 누가 기형도의 뒤를 쫓고 있는가 물어 본다면, 주저 없이 황인찬을 뽑을 수 밖에 없다. 시인의 주위엔 송승연 〈철과 오크〉, 박 준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박성준 〈잘 모르는 사이〉 등의 중견 시인들이 있다. 이들의 뒤에 황유원 〈하얀 사슴 연못〉, 김소연 〈수학자의 아침〉, 박소란 〈수옥〉, 이제니 〈있지도 않은 문장은 아름답고〉, 유계영 〈지금부터는 나의 입장〉, 김복희 〈생마음〉, 문보영 〈모래비가 내리는 모래서점〉, 김현 〈장송 행진곡〉 등의 젊은 시인들이 줄을 선다. 물론 나의 주관적 견해다.

하지만 지금의 저울이 황인찬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서정시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그의 포스트모더니즘 경향의 시를 읽는 것은 다소 인내심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 그의 짧은 시 한 편을 소개한다.

개종 5
여름
성경학교에
갔다가
봄에
돌아왔다

시는 시인의 일기장かと 같아서 시인의 모든 것이 보인다. 혹시 모를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밝혀 두려고 한다. 이것은 사이비성 신내림의 후유증이 아니라, 그저 늙어감에 따르는 부수현상일 뿐이다. 시인의 나이를 알 수는 없다. 나이야 시간의 경과에 따른 필연적 나이테와 흡사하지만, 저마다 간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인의 깊이가 보이는 것이다. 넓이는 방대한 독서량이나 헛발질로 오해 받을 수 있지만, 깊이는 절대 속일 수도 대신할 수도 없다. 화장이 짙은 시가 제일 고집이 세고 소화하기 불가능하다. 그래서 너무 슬프거나 기쁘면 너무 울고 웃어서, 얇은 개울에 머물게 된다. 시인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다. 장남인 시인은 아버지가 바라는 신앙을 가지는 것에 실패한다. 그리고 그 상처는 집을 떠나는 성장과 탈출의 시기에 비로소 해소된다. 그의 시가 다소 선시(禪詩) 같은 모습을 가지는 것은, 개종이나 좌절의 상처가 아니라 성장의 흉터처럼 느껴진다.

한 인터뷰에서 그가 표현한 시작법을 기억하여 적어본다.

보통 시인들이 시의 본문을 쓰고 제목은 내용 중 일부나 핵심을 차용하는 것과 달리, 그는 제일 먼저 제목을 정한다고 했다. 시간보다는 공간의 배치에 중점을 둔다. 방법론적 거리두기에 중심을 맞추는 것이다. 그것은 거리확보의 중요성에 있다. 제목을 정하고 그것과 가능한 떨어진 거리에서 첫 문장을 쓰기 시작하여, 끝없이 공간의 확대와 거리감을 향해간다. 여기에서 제목과 시의 내용은 서로 긴장감을 유지하며, 그리워하고 시기한다. 이것은 탄탄한 시 전체 판의 테두리 안에 시를 뿌리는 것이다. 문장과 이야기 간에도 적당한 거리와 공간을 유지시키려고 노력한다. 이 모든 확장성의 시 자체는 여전히 전체의 시 안에서 간헐을 유지한다. 마지막으로 시적 자아가 관찰하는 위치는 대상과 조금 벗어나 떨어진 채로, 무관하거나 서늘한 태도를 취한다.

황인찬은 우리가 기다려온 기형도일까?

***박상호 동문(치대 80·샌디에이고)은 본업인 치과의를 하면서 미주한국일보를 통해 시(2010년)와 소설(2012년)로 등단했다. 지난해 자전적 수필집을 출간했다.

“미국 독립선언서의 정신, 이제 우리의 권리다”

뉴욕 골든클럽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역사 특강

겐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이 대학 역사학과 교수인 이길주 박사의 열강으로 진행됐다. 뉴욕 골든클럽은 매달 발행해 회원들에게 보내는 뉴스레터에 강연 내용을 요약 소개했다. 다음은 뉴스레터에 실린 강연 요약이다.

이 특강은 미국의 독립 역사를 통해 미국의 정체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우리 한인 이민 사회 또한 미국 역사의 주인이며 주역으로 살아갈길 바라는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흔한 말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권리도 누려본 사람이 이를 더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무엇이든 귀하면, 더 많이 갖고, 지키려 합니다. 그것이 위협받으면 당연히 저항에 나섭니다.

독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은 남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는 삶을 살던 사람이 삶에 제약이 가해지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할 때 더 숨이 막히고 답답해질 것입니다.

1776년 7월 4일, 영국의 북미 13개 식민지에 살던 주민들은 인구 수로는 세 배, 군사력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는 식민 통치국 영국에 대해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7년 2개월의 독립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미 그 전해인 1775년, 미국 식민지 주민들로 구성된 민병대와 영국군 사이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1776년 독립선언의 기본 사상은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로부터 그 누구도 빼앗거나 포기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자연적 권리를 갖는다는 생각입니다.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를 말합니다. 독립 사상은 간단 명료합니다.

국가 공동체는 사회 구성원들이 이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합의를 통해 탄생시킨 것입니다. 물론 통치자를 세웠습니다. 문제는 이 통치 권력이 앞의 결코 박탈할 수 없는 권리를 침해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은 권리를 짓밟는 권력에 항거해, 자신들의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가 더욱 공고히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혁명인데, 이는 권리를 넘어 책임이라고까지 독립선언서는 역설합니다. 정치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구성원의 권리를 파괴하는 통치 구조를 허물고, 그 위에 새로운, 즉 인간의 권리를 더 잘 증진하는 대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말 그대로 미국 혁명은 우연이 아니라 필

연이었습니

다. 1600년대에 시작된 미국의 개척사를 관통하는 주제는 자치와 자주입니다. 영국에서 미국까지의 거리가 3천 5백 마일가량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두 달에서 한 달가량을 항해해야 미국에 도착합니다.

지금의 매사추세츠를 중심으로 청교도들이 뉴잉글랜드에 정착했습니다. 이들은 모국인 영국을 바라보고 기다

영국의 통제에 맞서 자유와 자치를 위해 독립 선언

생명·자유·행복 추구,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본권

오늘의 미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

리며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영국 왕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지만, 실존은 스스로가 알아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찍이 정착지에 자치적 행정을 위한 조직을 형성하고, 본국으로부터의 명령을 기다리는 대신, 법을 만들어 스스로를 다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쪽의 버지니아도 다르지 않았습니

다. 자치의 기본은 법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처음부터 법치 국가로 발전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이 없는 자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과 자치는 사회 구성원들이 창조주가 부여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부패한 권력 또는 위선적 통치란 자유를 빼앗은 상태에서 통치자가 제멋대로 정한 법에 의존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유 없는 법치가 최악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행복 추구(Pursuit of Happiness)”의 권리라는 새로운 정치 개념을 주창합니다.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서구에서 오래 사용되었는데 “행복” 이전에 “소유(property)”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재산을 소유하고 이를 본인의 판단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1600년대부터 한 세기 반 동안 미국은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1650년 5만이었던 인구는 1750년 120만으

로 늘었습니다.

경제 생산 면에서 미국은 상업 수출 농으로 빠르게 세계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뉴잉글랜드의 어업과 조선업, 뉴욕과 펜실베이니아가 포함되어 있는 중간 지대는 곡물 창고라 해도 됩니다. 남부는 담배, 쌀, 염료를 만드는 인디고 등의 수출이 큰부를 창출했습니다.

언급한 대로 자작농보다는 활발한

상업, 수출농에 의존한 미국의 경제 구조 안에서, 소유를 통한 행복 추구에 반하는 개념 중 하나로 세금을 들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상행위와 이를 통한 부의 축적을 방해하는 독소라 해도 됩니다. 싸고 넓은 땅으로 옮겨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개척”의 권리 또한 미국인들의 실존과 직결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18세기 중반부터 미 대륙의 식민지 유지를 위한 재정 부담이 늘어나자 영국은 북미 식민지로부터의 세수(稅收) 증대를 꾀했고, 동시에 원주민들과의 충돌로 야기될 전쟁을 피하기 위해 미국인들의 서부 이주와 개척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런 런던의 정책이 자신들의 자유와 실존을 위협한다며 “학정(Tyranny)”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혁명은 추상적 정치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여겼기 때문에 세계 최강의 군대를 상대로 7년 넘는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평등한 창조,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가 기둥이 되는 미국의 독립선언에는 흔히 미국의 “원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인간에게 꼭 필요하다는 선언은 백인들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미국의 독립 당시 50만의 흑인 노예들이 있었습니

다. 독립선언서를 쓴 토머스 제퍼슨에게

는 175명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도 노예를 사고팔았습니다. 그의 정부(情婦)인 흑인 노예 여성에게서 다섯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물론 제퍼슨은 자신이 생부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순덩어리입니다.

많은 흑인들에게 독립기념일은 미국 역사와 사회의 이중성을 상기시킵니다. 미국의 노예제도는 독립선언 후 80년 이상 이어졌습니다. 남북전쟁 이후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지만 흑인들에게 평등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독립선언 250년이 지난 지금도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 차별, 폭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표현대로 독립선언서는 흑인들에게 ‘부도수표’인 것이 맞습니다.

자유와 권리, 행복과 너무도 거리가 먼 노예 제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독립을 선언하는 13개 식민지(주)들이 연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노예제도를 생존의 필수로 여겼던 버지니아를 위시한 남부주들이 독립선언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1776년 미국 독립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예 소유 또한 백인들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자유였기 때문입니다.

결론으로 미국 독립선언이 우리 동포 사회에 갖는 의미는 큼니다. 우리는 소수민족, 이민 집단입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사회적 신분이 상승해도 인종 편견, 차별,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피부색과 얼굴 생김새를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COVID) 당시를 기억합니다. 동양계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서까지 합쳐져 미국 사회의 인종 차별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인종차별, 편견, 폭력은 경제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이민자들이 자신 있게 이 사회에 던질 수 있는 메시지가 바로 독립선언서의 정신입니다. 이번 특강에서 평등, 생명, 자유, 권리의 메시지가 흔히 말하는 “미국 사람들의 것”이 아닌 바로 우리들의 것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영국이 동인도회사에 북미 식민지에 대한 차(茶) 수입 독점권을 부여하자 보스턴 주민들이 이를 자유의 대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행동에 나섰다. 1773년 보스턴 항에 정박한 선박에 올라 수입 차를 바다에 내던진 ‘보스턴 차 사건(Boston Tea Party)’을 묘사한 W. D. 쿠퍼의 The History of North America, London: E. Newberry, 1789의 판화.



1776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 선언을 묘사한 화가 존 트럼벌(John Trumbull)의 1819년 작품 'Declaration of Independence'

김학천의 세상만사 이야기



김학천
(치대 70·남가주)

봄의 햇살은 생명을 깨우고, 가을의 햇살은 열매를 익히지만, 8월의 태양은 사람을 오래 바라본다.

마치 무엇인가를 시험이라도 하듯, 한낮의 빛은 땅과 도시를 가만두지 않는다. 나무는 잎을 늘어뜨리고, 사람은 걸음을 늦춘다. 생각마저 더위 속에서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다. 유난히 더운 올여름, 유럽의 폭염 뉴스를 접하다가 문득 에드나 오브라이언의 저서 '8월은 악마의 달'이 떠올랐다. 지루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여자가 지중해 바닷가로 혼자 떠난다. 낯선 태양 아래서 잠시 자기 자신을 놓아버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여름 휴가라는 시간이 가진 묘한 해방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쉽게 방종으로 넘

어가는지를 그린 이야기다. 조금은 과장되어 보이는 제목에서 작가는 달력 보다는 태양을 말하려고 했던 것 같다. 너무 강한 햇빛은 사람을 지치게 하고 그런 마음 속에 외로움이나 욕망, 후회 같은 것들이 조용히 스며들 수 있어서다. 해서 악마는 어디선가 찾아오는 존재가 아니라 뜨거운 여름날 문득 고개를 드는 내 안의 그림자일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헌데 신기하게도 역사의 기억 또한 8월에 머문 적이 있다.

1914년 8월, 유럽은 전쟁으로 들어섰다. 그 때 유럽의 지도자들은 누구도 진심으로 전쟁을 원하지 않았지만 한번 시작되자 멈추지 못했다. 체면을 잃을까 두려워 아무도 먼저 손을 놓지 못한 채 몇 주 만에 끝날 것이라던 전쟁이 4년을 이어질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다. 뜨겁게 달아오른 대륙이 마치 메마른 숲처럼 작은 불씨 하나를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다. 1차 세계대전은 그렇게 시작됐다. 바버라 테크먼은 '8월의 포성'에서 그 첫 한 달을 그렸다.

결국 문학도, 역사도 같은 계절을 기억하고 있던 것. 두 책은 같은 질문을 묻는다. 멈춰야 할 순간에 왜 아무도



멈추지 못했을까? 한 여자의 일시적인 방황이든, 지도자들의 오만이든 그럴 수 없다'는 관성 때문이었을까? 그렇다면 태양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고 폭염이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운 계절은 인간이 평소 감추고 있던 것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힘이 있는 것 같다. 참을성이 짧아지고, 분노는 빨리 타오르며, 이성은 쉽게 지친다. 자연은 아무말도 하지 않지만 인간은 그 앞에서 자신의 민낯을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보면 8월을 '악마의 달'이라 부르는 것도 계절 탓으로

만추 지 못했을까? 한 여자의 일시적인 방황이든, 지도자들의 오만이든 그럴 수 없다'는 관성 때문이었을까? 그렇다면 태양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고 폭염이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봐 넘기려는 오래된 버릇인지도 모른다. 태양은 그저 태양일 뿐이고, 문제는 늘 그 아래 서 있는 우리 쪽에 있었는데도 말이다. TS 엘리엇은 4월을 '잔인한 달'이라 불렀지만, 그 잔인함 속에는 겨울을 지나 다시 무언가 피어난다는 희망이 함께 있었다. 허나 8월에는 그런 약속이 없다. 다만 여름이 다 지나가기 전에 내가 무엇을 지켰고 무엇을 놓쳤는지가 남을 뿐이다. 태양은 내일도 떠오를 것이고 우리는 또다시 그 빛 아래에서 살아갈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태양은 악마가 아니라는 사실. 다만 너무 강한 빛이 우리가 애써 외면해온 그림자까지도 조용히 드러내 보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 8월을 맞이하는 마음은 예전과 달라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릴 적에는 방학과 바다를 먼저 떠올렸고, 젊은 날에는 눈부신 태양을 동경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8월은 계절이라기보다 되묻는 철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는 뜨거운 계절에도 너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멈출 수 있을까?'라고.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쿠키 푸셔' 거부한 주한미국대사

'쿠키 푸셔(cookie pusher)'라는 평범한 단어가 세간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2007년, 이라크전이 끝날 무렵이다.

당시 국무부가 외교관들을 바그다드 주재 미국대사관으로 발령하려 하자 외교관들 사이에서 집단적인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라크 근무 명령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는 격한 반응이었다. 곳곳에서 테러가 벌어지던 당시 이라크는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가야 하는 '험지'였다.

무려 300여 명의 외교관이 모여 정부 방침을 성토했다. "제 기능을 못할 바에는 차라리 대사관 문을 닫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를 못마땅하게 바라본 것은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들이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그린존(Green Zone)'의 현대식 건물 안에서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서류나 뒤적이며 근무하는 주재에 근무를 기피해?

군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기껏 하는 일이 '쿠키 푸셔'와 다를 게 뭐냐." 언론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외교관들을 비꼬는 이 말이 당시 유행어처럼 번졌다.

'쿠키 푸셔'는 외교관을 빗대어 부르는 은어다. 외교관들이 주재국의 일반 시민들과 직접 만나고 현장을 누비기 보다는 상류층 인사들과 파티를 열고, 그 자리에서 "이 쿠키 맛있네요"라며 옆 사람에게 과자를 권하는 모습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국민과의 스킨십은 외면한 채 고급 파티에 참석해 사교나 즐기는 외교관을 조롱하는 표현인 셈이다. 그래서 '쿠키 푸셔'는 단순한 별명이 아니라 외교관의 무사안일과 특권의식을 비꼬는



서울 영락교회를 찾은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사진=김인권 동문

멸칭에 가깝다.

그런데 요즘 미국 대사들 가운데 미셸 스틸만큼 화제를 몰고 다니는 인물도 드물성 싶다.

지난 5월 초, 상원 인준을 보름여 앞둔 시점에 LA의 한 저택에서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를 위한 작은 모임이 열렸다. 참석자는 30여명 남짓. 대부분 미셸 스틸의 연방하원의원 시절 후원자들이었다. 한국에서 온 김종섭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필자를 포함한 전·현직 언론계 동문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초청 대상은 하기환(공대 66) 박사가 직접 선정했다. 민주당 성향인 자신이 공화당원인 미셸에게 호감을 갖게 된 것은 그의 인간적인 매력 때문이라며 특유의 입담을 과시했다.

"대사 지명자가 벌써부터 '극우 성향이다'라는 등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돌고 있다. 한국에 가서는 조용히 입 다물고 있다가 돌아오세요." 하 동문의 우스개에 폭소가 터졌다.

미셸도 곧바로 받아쳤다. "그래서 사실은 인도네시아를 지망하려고도 했어요. 쉬었다 오려고요."

당시로서는 '천기누설'에 가까운 이야기였다. 미셸의 설명에 따르면 백악관에서 자신을 불러 지도를 펼쳐놓고는 한국을 포함한 20여 개 나라를 가리키며 "가고 싶은 데를 골라보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선택한 곳이 바로 그가 태어나 자란 대한민국이었다.

그날 만난 미셸의 모습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화장은커녕 립스틱조차 바르지 않았다. 꾸밈없는 '아줌마 스타일'이라고나 할까.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편안하게 느낀다. 집안에는 김치찌개 냄새가 배어 있을 만큼 털털하고 스스럼없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부임하면 대사관저를 개방하겠으니 언제든지 놀러 오라고 했다. 다만 자신이 쓸 수 있는 판공비가 제한돼 있어 경비는 각자 부담이라는 농담까지 곁들였다. 다시 한 번 웃음이 터졌다.

미국 대통령들은 전통적으로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요국 대사에는 자신의 측근이나 정치적 인사를 기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한국 주재 대사는 주로 국무부 출신 외교관이 맡아왔다. 이번에는 그 오랜 관행이 깨진 셈이다.

그래서인지 미셸 스틸 대사는 '쿠키 푸셔'가 되기를 거부하는 모양새다. 부임 직후부터 그는 대사관 담장 안에 머무르지 않고 '거리 행보'를 시작했다. 마치 국회의원이 지역구 관리하듯 시장을 찾아가 어묵과 떡볶이를 맛있게 먹으며 상인들과 손을 맞잡았다. 화려한 외교 의전보다 서민들의 삶 속으로 먼저 들어간 것이다.

얼마 전 남가주의 한 동문은 서울 영락교회에서 미셸 대사와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무척 신기해했다. 그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등산반 카톡방에 올렸다.

사진 속 미셸 대사는 역시 화장이 없는 수수한 모습이었다. 눈에 띄는 경호원도 없이 교인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여 앉았다.

외교는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다. 거창한 외교 문서나 화려한 만찬보다 때로는 따뜻한 악수 한 번, 시장 상인의 손을 잡는 일,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조용히 앉아 함께 예배드리는 일이 더 깊은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다.

미셸 스틸 대사가 보여주는 소탈한 행보가 단순한 '스타일'에 그치지 않고, 한미 양국 국민과 정부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새로운 외교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모습만 놓고 보면 그는 '쿠키 푸셔'가 되기에는 너무 바쁘게 거리를 누비고 있는 것 같다.

〈문리대 66〉

서울대 로봇틱스 국가연구소 출범...10년간 1000억원 지원 받아

인간 중심 피지컬 AI 연구 선도 현송문화재단 기부로 연구동 건립

서울대가 연간 100억원씩 10년간 정부 지원을 받는 로봇틱스 국가연구소를 출범시켰다. 서울대는 생명공학공동연구원과 AI연구원에 이어 로봇틱스 국가연구소를 갖추면서 첨단 미래 연구를 이끌 세 축을 완성하게 됐다. 서울대가 국내 로봇틱스 연구의 핵심 거점을 넘어 세계적인 연구·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는 8월 18일 관악캠퍼스 해동 첨단공학관에서 ‘서울대 로봇틱스 국가연구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유홍림 총장을 비롯해 조규진(기계설계92) 로봇틱스 연구소장, 최형두(사회81)·정진욱(정치84)·박민규(경제93) 국회의원,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채흥준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장, 박종애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장 대행과 교내외 연구자, 학생, 후원자 등이 참석했다. 개소식은 연구자와 학생 12명이 각자의 꿈을 소개하는 ‘드림즈 토크’로 시작됐다.

연구소의 모토인 ‘꿈을 현실로(Dreams to Reality)’를 주제로 학부생부터 대학원생, 교수, 창업가, 해외 연구자까지 무대에 올랐다. 이들은 수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의료로봇, 낙상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웨어러블 로봇, 극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자율로봇, 사람의 창의성을 확

장하는 로봇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실현하고 싶은 미래를 이야기했다. 조규진 소장은 이어 연구소의 비전과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조 소장은 4년 전부터 서울대에 들어진 로봇틱스 연구 역량을 하나로 잇기 위해 국내외 연구 생태계를 살피고,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로봇틱스 데이’를 개최하는 등 연구소 설립의 기반을 다져왔다. 조 소장은 “세계적인 연구소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 꿈을 꾸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게 하는 생태계”라며 “서울대의 축적된 역량과 준비, 미래 비전이 국가연구소 선정으

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개소는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꿈을 질문으로, 질문을 기술로, 기술을 현실로 만들어 글로벌 로봇틱스 혁신의 중심이 되겠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앞으로 10년 동안 ‘인간 중심 피지컬 AI 로봇틱스’를 핵심 연구 분야로 삼는다. 인공지능의 규모와 데이터 확대에 머무르지 않고 로봇의 형태와 재료, 지능이 함께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연구 성과가 논문에 그치지 않고 창업과 산업으로 이어지도록 청년 연구자의 도전을 뒷받침하는 것도 주요 목표다. 독립적인 연구공간도 마련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현송교육문화재단이 연구소 전용 건물 건립을 위한 기부 협약을 맺었다. 현송교육문화재단의 기부와 국고 지원을 바탕으로 전용 연구동

이 들어서면 연구와 교육, 창업, 산업 협력을 잇는 로봇틱스 생태계 조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유홍림 총장은 환영사에서 로봇틱스 연구가 특정 분야에 머물지 않고 서울대의 역량을 결집해 인류의 미래와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들도 연구 성과가 기술 상용화와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박종애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장 대행은 “연간 100억원씩 10년을 지원하는, 국가 연구지원 사업 가운데서도 규모가 크고 지원 기간이 긴 사업”이라며 치열한 경쟁을 거쳐 서울대가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진에게 “2036년에는 전 세계 연구자들이 가장 오고 싶어 하는 연구소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남주 기자



8월 18일 열린 서울대 로봇틱스연구소 개소식에 유홍림 총장을 비롯해 최형두·정진욱·박민규 국회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29대 서울대 총장 선출 절차 돌입 9월 9일 총장 예비후보자 4인 선정

서울대 제29대 총장 선출 절차를 맡을 총장추천위원회가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주요 조직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총장후보자 모집은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학내외 인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장추천위원회는 지난 7월 16일 제1차 회의에서 신혜경(미학83) 서울대 미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상대동창회 회장인 권영수(경영75) 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출

했다. 위원회는 ‘서울대학교 총장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이사회 추천 3명은 내부위원 1명과 외부위원 2명, 평의원회 추천 27명은 내부위원 18명·외부위원 8명·학생 1명이다. 7월 28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총장후보초빙위원회와 총장예비후보자검증소위원회를 각각 9명으로 구성했다. 총장후보초빙위원회는 서울대의 발전을 이끌 적임자를 발굴하고 후

보 참여를 넓히는 역할을 한다. 외부 인사 5명과 내부 인사 4명이 참여한다. 총장예비후보자검증소위원회 역시 외부 인사 5명과 내부 인사 4명으로 꾸려졌다.

총장 선출과 임명 과정에서는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 재산 증식, 위장 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 운전, 성 관련 범죄 등 이른바 ‘고위공직후보자 7대 비리’에 대한 검증도 이뤄질 예정이다. 총장추천위원들은 선출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행동강령도 마련했다. 후보자나 후보자와 관련된 제3자가 개별 방문·면담·모임 등을 요청하면 이를 거절하거나 피해야 한다. 금품·향응은 물론 보직에 관한 약속 등 어떠한 이익도 주고받을 수

없다. 특정 후보의 평가 내용과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지지를 종용해서도 안 되며, 업무 중 알게 된 후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향후 일정은 아래와 같다.

△9월 9일 총장예비후보자 4인 선정
△9월 17일과 22일 총장예비후보자 공개 소견 발표회
△10월 7일~ 교원·직원·학생으로 구성된 정책평가단 3명 후보 이사회 추천 △이사회 최종 후보자 1명 선출 후 교육부 장관 제청 거쳐 대통령 임명. 현 총장의 임기는 2027년 1월 31일까지이며, 새 총장의 윤곽은 올해 말 나올 전망이다. 총장 임기는 4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업소록 광고		
남가주 CA		
부동산 : Team Spirit Realty 이종묘(간호대69), Jennie Lee T: 714-396-0624 6301 Beach Blvd #225 Buena Park, CA 90621 jennieleec@gmail.com	기계 기술 전자 : Link TV Media 김원탁(공대65) O: 818-514-6780 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linkboxusa@gmail.com	자동차 서비스 :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사대60) T: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뉴욕 NY.NJ	필라델피아 PA	시카고 CHI
의료 병원 :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의대66) T: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건축 : THA Consulting, Inc. 손재욱(가정대77) T: 484-342-0200 480 Norristown Road. Suit 200 Blue Bell, PA 19422 www.tha-consulting.com	주방 가전 : Magic Chef 조규승(문리대72) T: 630-238-0600 940N. Central Avenue, Wood Dale, IL 60191 salessupport@magicchef.com www.magicchef.com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재정자립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재정자립기금 \$1,362,304 (as of 8.30.2026)

종신이사

다이아몬드이사 (\$100,000이상)

워싱턴주-故고광선 (공57)
뉴욕-조상근 (법69)
필라델피아-신의석 (공53)

플래티넘이사 (\$50,000 이상)

남가주-김일영 (의65)
조지아-주중광 (약60)
조지아-허지영 (문66)

골드이사 (\$10,000 이상)

워싱턴주-양남주 (명예이사)
남가주-김경숙 (간68)
남가주-김보연 (간63)
남가주-김용재 (의60)
남가주-노명호 (공61)
남가주-박종수 (수의58)
남가주-박창규 (약59)
남가주-서동영 (사60)
남가주-서치원 (공69)
남가주-성낙호 (치63)
남가주-심화섭 (약61)
남가주-이기준 (법54)
남가주-이병준 (상55)
남가주-이홍표 (의58)
남가주-벤자민홍 (문53)
남가주-하기환 (공66)
남가주-한귀희 (미68)
남가주-한홍택 (공60)
남가주-홍수웅 (의59)
남가주-홍훈정 (음70)
남가주-정상진 (상59)
뉴욕-강에드워드 (사60)
뉴욕-오인석 (법58)
뉴욕-이정자 (간59)
뉴잉글랜드-박영철 (농64)
뉴잉글랜드-오세경 (약61)
뉴잉글랜드-윤상래 (수의62)
뉴잉글랜드-정선주 (간68)
뉴잉글랜드-최홍균 (공69)
미시간-박용화 (의58)

북가주-강재호 (상57)
북가주-김정희 (음56)
북가주-민병곤 (공65)
북가주-전혜경 (문67)
샌디에고-이면기 (공64)
시카고-이용락 (공48)
시카고-조규승 (문72)
워싱턴주-김재훈 (공72)
워싱턴DC-이태영 (법60)
조지아-김현희 (간59)
커네티컷-김창수 (의54)
필라델피아-김영우 (공55)
필라델피아-손재욱 (가정77)
필라델피아-이만택 (의52)
하트랜드-이상강 (의70)
하트랜드-김경숙 (가정70)

실버이사 (\$5,000 이상)

남가주-故김원경 (약59)
남가주-故김병연 (공68)
남가주-故이종도 (공66)
남가주-권봉성 (문64)
남가주-김수영 (사57)
남가주-박인창 (농65)
남가주-이종묘 (간69)
남가주-이호진 (간74)
남가주-정임현 (간72)
남가주-정재훈 (공64)
남가주-조용원 (문66)
남가주-홍성선 (약72)
뉴욕-김현중 (공63)
미네소타-황효숙 (사65)
북가주-박순희 (의60)
북가주-남광순 (음64)
북가주-차재철 (의62)
북텍사스-강영빈 (문58)
북텍사스-이승화 (공03)
워싱턴DC-남옥현 (경영84)
워싱턴DC-배성호 (의65)
워싱턴DC-최재귀 (미63)
조지아-김경숙 (사64)
조지아-김태형 (의57)
조지아-임수암 (공62)

종신이사 (\$3,000 이상)

남가주

故노재성 (법58)
故박명근 (상63)
故박윤수 (문48)
故서영석 (의55)
故오재인 (치33)
故윤낙승 (의60)
故오홍조 (치56)
강신용 (사73)
곽웅길 (문59)
권기홍 (의60)
김광은 (음56)
김기형 (상75)
김대중 (의70)
김동훈 (의71)
김보연 (간63)
김상찬 (문65)
김성호 (법64)
김자성 (의79)
김재영 (농62)
김정빈 (공66)
김홍묵 (문60)
나두섭 (의66)
나용화 (생과79)
류재풍 (법60)
박용필 (문66)
박원준 (공53)
방명진 (공73)
백길영 (의58)
백만일 (공64)
신건호 (법53)
신경자 (사60)
신영찬 (의63)
심상은 (상54)
안병일 (의63)
이근원 (공67)
이명선 (상58)
이성숙 (공56)
이세열 (사57)
이승훈 (상74)
이채진 (문55)
이청광 (상61)
임낙균 (약64)

임용오 (의57)
전경배 (의69)
전희택 (의58)
정균희 (의64)
정희영 (치58)
정동구 (공57)
정철룡 (의61)
제영혜 (가정71)
조환원 (의57)
차민영 (의76)
차종환 (사54)
한호동 (공58)
홍종화 (약74)
황해룡 (공52)

뉴욕

故김광호 (문62)
故한창섭 (문57)
故김종률 (사51)
고애자 (음57)
권영국 (상60)
김승호 (공71)
김영용 (치55)
김한중 (의56)
김해암 (의52)
배정희 (사54)
서영숙 (간67)
석창호 (의66)
손병우 (문69)
손진태 (약67)
신응남 (농70)
오홍호 (의66)
윤인숙 (간63)
윤종숙 (약66)
이강홍 (상60)
이기영 (농70)
이대영 (문64)
이영재 (상58)
이재덕 (법60)
이재량 (상61)
이전구 (농60)
이준행 (공48)
이태호 (상58)
조대일 (사53)
최수용 (상55)

최영태 (문67)
최한용 (농58)
최형무 (법69)
추재옥 (의57)
한태진 (의58)
허선행 (의58)

뉴잉글랜드

故고일석 (보건69)
故박경민 (의53)
김광수 (문73)
고종성 (사75)
김문소 (수의61)
김용구 (공66)
오세경 (약61)
윤선홍 (치64)
이의인 (공68)
전신의 (문57)
정정욱 (의60)
정태영 (문71)
조만연 (상58)
홍지복 (간70)

미네소타

김권식 (공61)
김태환 (의58)
남세현 (공67)
문성인 (공88)
박현아 (공88)
변우진 (문81)
송창원 (문53)
조형준 (문62)

미시간

故남상용 (공52)
故정태 (의57)
장병진 (공61)

북가주

박종성 (법53)
박진영 (공66)
손석보 (공68)
윤정욱 (약50)
최경선 (농65)
한만섭 (공49)
황동하 (의65)

샌디에고

임천빈 (문61)
유현주 (문65)
진성호 (공64)

시카고

故이윤모 (농57)
故강영국 (수의67)
故최의필 (의53)
소진문 (치58)
심상구 (상63)
윤봉수 (간69)
이재희 (치67)
장윤일 (공60)
조봉완 (법53)
한재은 (의59)

알래스카

윤제중 (농55)

오레곤
김상순 (상67)
박희진 (농78)
이은상 (상52)

오하이오

김용현 (경영66)
이지우 (의68)

워싱턴주

故김영일 (공53)
이명자 (간74)
이희백 (의55)
임현민 (공84)

워싱턴 DC

故방은호 (약43)
故서휘열 (의57)
강연식 (사58)
공순옥 (간66)
권기현 (사53)
민홍기 (문61)
박평일 (농69)
오인환 (문63)
이내원 (사58)

이선구 (문65)
이윤주 (상63)
최지원 (의61)

조지아

김용건 (문48)
석호태 (공85)
성성모 (사67)
이종석 (의54)

커네티컷

故유시영 (문68)

텍사스

박태우 (공64)
이광연 (공60)
조시호 (문59)

플로리다

김중권 (의63)
박우삼 (의54)
임필순 (의54)

필라델피아

고병은 (문55)
김현영 (수의58)
서중민 (공64)
신성식 (공56)
주기목 (수의68)
최종무 (상63)

하와이

故최경윤 (사51)

하틀랜드

故김명자 (문62)
김시근 (공72)
배규영 (사68)
오명순 (가정69)
이교락 (의53)

휴스턴

박진섭 (의67)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동문님의 '기부'가 미주동창회를 만듭니다.

함께 해주신 동문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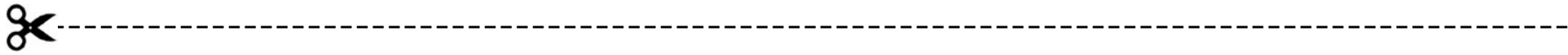


* 1,2차 회기 모두 내신 동문님은 명단에 BOLD로 바꿉니다.

동창회비 | 1차: 2025.7.1~2026.6.30, 2차: 2026.7.1~2027.6.30

남가주 강경주 (법58) 강동순 (법59) 강호석 (상81) 고윤석 (공62) 김경숙 (가정70) 김경자 (미60) 김광주 (문69) 김광은 (음56) 김기형 (상75) 김동산 (법59) 김동석 (음64) 김명숙 (농58) 김병완 (공58) 김상순 (상67) 김상진 (문65) 김성환 (의65) 김성호 (법64) 김수영 (사57) 김자성 (의79) 김재영 (농62) 김정복 (사55) 김종복 (법58) 김준식 (상75) 김영덕 (법58) 김영배 (미61) 김영중 (치66) 김옥경 (사60) 김원탁 (공65) 김태기 (의62) 김택수 (의57) 김태환 (의58) 나승욱 (문59) 나용화 (생과79) 노명호 (공61) 문병길 (문61) 박시영 (사63) 박은숙 (미62) 박인수 (농64) 박원준 (공53) 박자경 (사60) 박종수 (수의58) 박호현 (의52) 박호현 (의52) 백혜란 (미70) 벤자민홍 (문53) 서동영 (사60) 선우원근 (공66) 성낙호 (치63) 손학식 (공61) 송명국 (인문81) 송태진 (공79) 신건호 (법53) 신동국 (수의76) 신영찬 (의63) 심계식 (사63) 양은석 (음70) 양태준 (상56) 오선웅 (의63) 윤석철 (상60) 이강훈 (치65) 이방기 (농59) 이범식 (공61)	이상강 (의70) 이서희 (법70) 이소현 (공15) 이수인 (미95) 이연숙 (간76) 이용한 (공64) 이원익 (문73) 이종묘 (간69) 이진영 (의65) 이재권 (법56) 이창신 (법57) 이채진 (문55) 이호진 (간74) 이홍표 (의58) 임동규 (미57) 임창희 (공73) 장동석 (문66) 장문섭 (공69) 장소현 (미65) 장원경 (미73) 장윤희 (사54) 장인숙 (간70) 정동주 (생72) 정명자 (사56) 정연우 (서20) 정예현 (상63) 정 황 (공64) 조동철 (사68) 조 무 (법70) 주정래 (상65) 채규환 (법69) 천동우 (공63) 최영순 (간69) 한귀희 (미68) 한정현 (치55) 한홍택 (공60) 한호동 (공58) 함승욱 (간73) 현기웅 (문64) 홍선례 (음70) 홍성선 (약72) 홍성애 (간60) 황건홍 (공55) 황현상 (의55) 뉴욕 강에드워드 (사60) 고순정 (간69) 고애자 (음57) 권문웅 (미61) 권영국 (상60) 권영대 (공69) 권정덕 (의58) 금영천 (약72) 김광현 (미57) 김문경 (약61) 김복영 (간69) 김용연 (문63) 김욱현 (의59) 김은희 (간78) 김정희 (간69) 김정희 (약56) 김종원 (사58) 김현중 (공63)	리준무 (음65) 민인기 (의67) 박건이 (공60) 박경희 (음57) 박승화 (간69) 박은규 (약72) 박제순 (인문82) 방준재 (의63) 배상규 (약61) 변건웅 (공65) 서병선 (음65) 서의원 (공66) 석창호 (의66) 선종철 (의57) 성기로 (약57) 손갑수 (약59) 손진태 (약67) 송기인 (의60) 송용섭 (농63) 송용길 (대학원69) 신용남 (농70) 안태홍 (상65) 양경호 (공83) 양명자 (사63) 양성택 (상66) 우규환 (사60) 유재섭 (공65) 유은희 (간71) 유호근 (문71) 윤영섭 (의57) 이강욱 (공70) 이경림 (법64) 이대영 (문64) 이문봉 (미76) 이상근 (경영84) 이상무 (의56) 이영범 (공71) 이영희 (미68) 이웅대 (약63) 이재원 (상58) 이재진 (의59) 이충호 (의63) 이태안 (의61) 이홍우 (공50) 정동성 (상58) 조남천 (사59) 조대영 (공61) 조태환 (상56) 진봉일 (공50) 최준희 (의58) 최한용 (농58) 최형무 (법69) 함종금 (간66) 허영자 (약63) 하륜 (법02) Yong Auh (의66) 뉴잉글랜드 김경일 (공58) 김선혁 (약59) 김문소 (수의61) 김옥동 (사58) 김형범 (문57) 박종건 (의56)	박종승 (의56) 박지용 (경13) 송미자 (농62) 신정윤 (공60) 윤상래 (수의62) 윤영자 (미60) 이규진 (약60) 이금하 (문69) 임국희 (사92) 임영호 (공72) 한서동 (의61) 현건섭 (공55) 황민영 (공17) 룩키마운틴스 임현재 (의59) 미네소타 경종준 (공19) 김권식 (공61) 문성인 (공88) 박현아 (공88) 성욱진 (치87) 손창수 (경영86) 임동근 (농14) 주한수 (수의62) 황호숙 (사65) 미시간 오동환 (의65) 이상길 (의65) 조병권 (공64) 주명순 (간64) 최병두 (의52) 하계현 (공64) 한영신 (생과86) 북가주 강성우 (공02) 강재호 (상57) 고범규 (공07) 고우중 (공04) 권구형 (공98) 권석주 (공08) 권지혜 (미05) 권현민 (공01) 권현호 (사13) 김갑균 (공60) 김갑준 (공62) 김교연 (문72) 김권규 (공14) 김규범 (경영07) 김기오 (물96) 김동건 (공10) 김소연 (공96) 김수현 (공14) 김아린 (사회16) 김예린 (공07) 김재환 (공98) 김정운 (간90) 김종현 (공60) 김지수 (경영11) 김푸른 (공15) 김현왕 (공64) 김호준 (공19) 남형욱 (자유12) 노경실 (외08) 노은지 (공07)	도연희 (생과93) 민병곤 (공65) 박서규 (법56) 박은정 (공04) 박정규 (간76) 박정욱 (미96) 백경민 (공15) 부영무 (치72) 서유리 (음06) 서혜수 (인05) 성은지 (인13) 손성호 (인지10) 손창순 (공69) 송수연 (간08) 송승환 (공98) 송현영 (공99) 신규영 (공64) 신범준 (공11) 신평터 (공98) 안성호 (인99) 안호삼 (문58) 연평우 (공03) 오택호 (공93) 온기철 (의65) 위창호 (의67) 유호준 (공10) 윤성희 (사58) 음재훈 (화88) 이가령 (공15) 이동희 (경영07) 이상민 (사회13) 이상현 (치11) 이수미 (공18) 이승훈 (경영01) 이정남 (공63) 이정현 (서양사96) 이지수 (공94) 임승래 (문66) 임정란 (음76) 임지현 (공96) 전병련 (공54) 정영주 (공00) 정지선 (상58) 정준임 (간67) 정한규 (의63) 정현준 (공04) 조성문 (공96) 지대형 (경영07) 최경선 (농65) 최종훈 (공93) 최진경 (영12) 최홍규 (자전13) 추교진 (공03) 하성주 (공04) 한기웅 (공89) 한상봉 (수의67) 한주연 (영13) 홍병익 (공68) 황동하 (의65) 황만익 (사59) 황지성 (공11) 북텍사스 송요한 (문73)	이석호 (농78) 최희기 (공61) 샌디에고 김인철 (약70) 오계환 (공64) 이문상 (공62) 임춘수 (의57) 시카고 국경환 (경영12) 김동희 (공66) 김병윤 (문65) 김성일 (공68) 김승주 (간69) 김정수 (문69) 김용주 (공69) 김용환 (공71) 김정수 (문69) 김현주 (문61) 노영일 (의62) 민영기 (공65) 박창용 (공87) 백운기 (문56) 서상현 (의65) 소진문 (치58) 신석균 (문54) 심상구 (상64) 윤경순 (사61) 윤덕상 (치62) 윤봉수 (간69) 이건정 (공69) 이경미 (미69) 이덕수 (문58) 이동균 (공75) 이영우 (문66) 이용수 (약51) 이재희 (치67) 이준수 (공76) 장윤일 (공60) 정성일 (공86) 조규승 (문72) 조대현 (공57) 최희수 (문67) 한익일 (공62) 한재은 (의59) 홍 건 (의64) 홍승우 (사회87) 홍정일 (약57) 황치룡 (문65) 오레곤 박희진 (농78) 한국남 (공57) 애리조나 진명규 (공70) 오하이오 유덕영 (공57) 워싱턴주 김인배 (수의59) 김재훈 (공72) 안승적 (농59) 유성열 (공대72) 윤석진 (문64) 이길승 (상57) 이정관 (농83)	이회백 (의55) 정영자 (사60) 최두환 (공83) 최준한 (농58) 워싱턴 DC 강길중 (약69) 권철수 (의68) 김내도 (공62) 김부근 (의52) 김준수 (공07) 김응환 (치88) 김희주 (의62) 나연수 (사54) 남욱현 (경영84) 남춘일 (사69) 박상근 (법75) 박성희 (환경계획20) 박인영 (의69) 박일영 (문59) 박홍우 (문61) 배성호 (의65) 백용현 (공64) 변광록 (간72) 서윤석 (의62) 석균범 (문61) 안민영 (경영01) 오인환 (문63) 우제형 (상54) 이내원 (사58) 이민석 (공89) 이선구 (문65) 이성배 (수의57) 이승재 (공15) 이연주 (치88) 이종국 (의52) 이준영 (치74) 정문필 (사56) 정 상 (약83) 정원자 (공62) 정평희 (공71) 최대용 (의73) 최재귀 (미63) 홍영석 (공58) 조지아 김기준 (공61) 김영서 (상54) 김학수 (상65) 남세현 (공67) 서광모 (공65) 성성모 (사67) 송용덕 (의57) 이종석 (의54) 임수암 (공62) 정선휘 (공65) 최종진 (의63) 한성수 (의54) 한영신 (가86) 중부텍사스 이학호 (수의59) 캐롤라이나 이중영 (음58) 정신호 (자연78) 조철영 (의68)	테네시 권준희 (가정87) 김경덕 (공75) 김 현 (문93) 서갑식 (공70) 텍사스 배성렬 (화10) 이승화 (공03) 이태균 (공16) 천양곡 (의63) 황명규 (공61) 플로리다 김중권 (의63) 박우삼 (의54) 오석일 (의64) 이만택 (의52) 이민우 (의61) 필라델피아 강준철 (사59) 고병은 (문55) 고석규 (치65) 김국간 (치64) 김순주 (치95) 김영남 (의61) 김현영 (수의58) 서중민 (공64) 손재욱 (가정77) 신선자 (사60) 신성식 (공56) 심영석 (공76) 안세현 (의62) 오진석 (치56) 윤정나 (음57) 이규호 (공56) 이성숙 (가정74) 전방남 (상73) 정덕준 (상63) 정홍택 (상61) 주기목 (수의68) 지홍민 (수의61) 조화연 (음64) 최종무 (상63) 최현태 (문62) 한동휘 (문57) 하틀랜드 구명순 (간66) 심정희 (음86) 오태요 (의56) 윌리엄슨주희 (음89) 이주현 (미92) 정민재 (농70) 하와이 김용수 (농75) 안은식 (문55) 이재형 (수의61) 휴스턴 류유미 (약62) 박태우 (공64) 박석규 (간59) 이길영 (문59) 진기주 (상60) 최성호 (문58) 하재청 (문67)
---	---	---	--	---	---	--	--

일반후원금, 장학후원금, Brain Network 후원금, Charity 후원금, 광고후원금, 지부분담금 2025.7.1~					
일반후원금 남가주 김기형 (상75) 600 김상순 (상67) 300 김성환 (의65) 200 김영배 (미61) 200 김정상 (경제91) 300 김종표 (법58) 200 박종수 (수의58) 3,000 송명국 (인문81) 100 신영찬 (의63) 200 양은석 (음70) 200 윤석철 (상60) 2,000 이범식 (공61) 200 이병준 (상55) 10,000 정예현 (상63) 200 정임현 (간72) 1,000 한귀희 (미68) 2,000 황건흠 (공55) 200 황현상 (의55) 200 익명요청 1,000 뉴욕 강에드워드 (사60) 700 리준무 (음65) 500 선종철 (의57) 200 신응남 (농70) 3,500 조남천 (사59) 300 뉴잉글랜드 오세경 (약61) 3,000 윤상래 (수의62) 1,000 정선주/박영철 (간68, 농64) 5,000 미네소타 강순건 (문57) 1,000 김권식 (공61) 41,000 이희운 (농84) 100	황호숙 (사65) 40,000 미시간 고광국/고국화(공54, 56) 1,000 오동환 (의65) 400 북가주 황만익 (사59) 200 샌디에고 임춘수 (의57) 200 시카고 조규승 (문리72) 1,000 이용수 (약51) 250 서상현 (의65) 100 장윤일 (공60) 100 최희수 (문67) 100 오레곤 박희진 (농78) 200 오하이오 故정운행 (문53) 500 조지아 성성모 (사67) 200 송용덕 (의57) 200 이종석 (의54) 100 한성수 (의54) 200 워싱턴 DC 강길중 (약69) 500 권철수 (의68) 500 박상근 (법75) 1,000 박평일 (농69) 1000 서윤석 (의62) 200 정평희 (공71) 200	캐롤라이나 조철영 (의68) 200 테네시 김경덕 (공75) 100 플로리다 김중권 (의63) 200 필라델피아 손재옥 (가정77) 500 이성숙 (가정74) 300 휴스턴 진기주 (상60) 1,000 SNUAA EDGE 후원 미주 총동창회 10,000 서울대 총동창회 2,000 남가주지부 1,000 뉴욕지부 2,600 북가주지부 500 미네소타지부 500 고국화/고광국 (공56) 미시간 1,000 김해암 (의52) 뉴욕 3,000 조성문 (공96) 북가주 2,900 권혁민 (공01) 북가주 50 Moloco 3,000 SAEFARM 1,000 장학후원금 남가주 김중섭 (문66) 10,000 김홍묵 (문60) 300 노명호 (공61) 10,000 박원준 (공53) 500	한홍택/백훈(공60, 미61) 10,000 황현상 (의55) 100 미네소타 김권식 (공61) 10,000 황호숙 (사65) 10,000 미시간 고광국/고국화 (공54, 공56) 200,000 북가주 신규영 (공64) 북가주 300 워싱턴 DC 이경애 (문58) 10,000 테네시 권준희 (가정87) 100 필라델피아 손재옥 (가정77) 5,000 플로리다 오석일 (의64) 200 커네티컷 지부 후원 故유시영(문68) 10,000 Brain Network 후원 워싱턴 DC 오인환 (문63) 200 광고후원금 남가주 강호석 (상81) 250 김영도 (공67) 250 김자성 (의79) 500 김원탁 (공65) 240	김한신 (서양사92) 500 김홍일 (치62) 250 독고량/서정화(음80) 250 박상호 (의65) 250 배재현 (공75) 500 서동영 (사60) 980 송미선 (음89) 500 신정식 (상64) 500 양은석 (음70) 125 이명선 (상58) 1,000 이병준 (상55) 1,000 이상대 (농80) 250 이승훈 (상74) 1,000 이중모 (간호69) 480 이찬용 (치72) 500 이현림 (음81) 500 정균희 (의64) 1,000 최운화 (상78) 250 하기환 (공66) 1,000 하선호 (치81) 250 한태호 (문75) 500 Duo America 300 남가주대학원동문회 1,000 아주여행사 500 SNU Foundation 6,000 OB 산악회 1,000 Korean Dance Institute 125 SNU 공대 500 북가주 이경희 (인문83) 500 뉴욕 석창호 (의66) 240 신응남 (농70) 500 미네소타 황호숙 (사65) 1,000	시카고 조규승 (문리72) 1,240 워싱턴 DC 남육현 (경영84) 1,000 정세근 (자연82) 500 필라델피아 손재옥 (가정77) 240 지부분담금 남가주 3,000 뉴욕 3,000 뉴잉글랜드 1,000 로키마운틴 200 미네소타 550 미시간 300 북가주 1300 북텍사스 550 샌디에고 550 시카고 2,400 애리조나 200 알래스카 오레곤 오하이오 300 유타 워싱턴DC 2,000 워싱턴주 800 조지아 800 중부텍사스 캐롤라이나 200 커네티컷 300 테네시 필라델피아 1,000 플로리다 300 하트랜드 550 하와이 휴스턴 550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매달 25일에 마감해서 올립니다. 혹시 누락된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nuaa.org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회비	종신이사		광고비		특별 후원금	
☐ \$ 200 ☐ \$ 500 ☐ \$ 1,000 ☐ \$_____	☐ \$100 (7/2025~6/2026, 1년) ☐ \$100 (7/2026~6/2027, 1년) ☐ \$200 (7/2025~6/2027, 2년)	☐ \$ 3,000 ☐ \$ 5,000 실버 ☐ \$10,000 골드 ☐ \$50,000 플래티넘 ☐ \$100,000 이상, 다이아몬드		☐ Full Size \$1,000 ☐ 1/2 Size \$ 500 ☐ 1/3 Size \$ 300 ☐ 1/4 Size \$ 250 ☐ 웹사이트(1년) \$ 500		☐ SNUAA 장학후원 ☐ Charity Fund (나눔) ☐ Brain Network ☐ 모교 발전기금 ☐ SNUAA EDGE 후원	
TOTAL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 USA 주소: SNUAA USA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한국 이름	영어 이름	단과대	학번 (입학년도)	지부	
		이메일				전화번호	
		현주소					
업소록 광고비		업소명					
☐ \$240 (2026/7~2027/6, 1년) *2026년도 업소록 광고를 원하시는 동문께서는 광고비를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름			단과대	학번 (입학년도)	지부
		업소 주소				업소 전화번호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501(c)(3) 비영리단체로, 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2026 흙커밍 일본 온천 힐링 여행

JAPAN YAMAGATA

2026. 10. 12 (월) - 16 (금) (4박 5일)

황금빛 들녘과 영산의 정취, 고즈넉한 료칸의 온천까지
가장 깊은 일본의 가을이
야마가타 쇼나이에 있습니다.

주요 방문지

사카타 (酒田)
쇼나이 (庄内)
히지오리 온천 (肘折温泉)
초카이산 (鳥海山) / 하구로산 (羽黒山)
산쿄창고 (山居倉庫)



참가문의

최진석 (법대64) | (213) 321-6428

이소란 (총무국장) | (651) 347-5428 | contact@snuuaa.org

SPECIAL ISSUE

당신이 피워낸
서울대학교 기부의 꽃

기부3관왕



만만한 기부
만 명의 만원이 만드는 힘



샤인 기부
빛나는 당신을 위해



천원의 식사
한 끼는 든든하게



각자도 좋지만,

셋이면

기부3관왕



자세히 알아보기

매월 만원의 참여는 만만한 기부가 되어 큰 힘을 만들고,
반짝이는 응원은 샤인 기부가 되어 서울대를 밝히고,
따뜻한 한 끼의 마음은 천원의 식사가 되어 학생의 하루를 채웁니다.

세 가지 기부에 모두 참여하면, 기부3관왕이 됩니다.

JOIN NOW

지금 참여 가능합니다. 간단 참여 신청서를 찍어 **213-435-1974**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 **성함** 는 **기부액** 으로 기부에 참여합니다.

연락처 **휴대폰 번호** **전공** **학과** **입학년도** **년** 입학

NJ office

- Tel : +1-212-768-9144
- E-mail : michelle@klcpagroup.com

LA office

- Tel : +1-213-435-1974
- E-mail : america@snu.ac.kr

기부3관왕 달성시,
SNU기부3관왕 오르골을
웰컴패키지로 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미주재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